

# 성도의 벗



3  
1990

말일성도  
수그리스도  
교회

OSHKO  
F-100  
THE ORIGINAL

# 성도의 벗

1990년 3월호

## 목 차

### 일 반

2

대관장단 메시지  
마음의 큰 변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9

난 포기할 수 없어  
낸시 팔라시오스

18

복음대로 단순하게 생활함  
글렌 엘 러드 장로

32

할머니의 일대기  
더글라스 티 에릭슨

34

맹인을 이해함  
래리 윌슨 손튼

41

나도 모르게 부른 노래  
베티 잔 머피

### 청소년란

10

이미 어린 아이가 아닌 소년  
캐시 클리캄프

43

질의 응답  
나쁜 생각을 깨끗하게 함

47

슬픔의 어두운 구름을 헤치고  
존 비 피시

### 정기 특별 기사

1

애독자편지

8

방문 교육 메시지  
집안에서 주님을 기억함

25

연구 발표  
카페인 : 간교한 중독제  
클리프트 제이 스프래튼

28

가족 지침서  
자녀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침

### 어린이란

50

물몬경 이야기  
늦쇠판

55

심심풀이  
복음 퀴즈  
멜로니 그로맨

모자이크

루스 아이먼

57

나의 친구 리치  
샌리 태너와 브리타니 스코트

58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로렐 롤핑

60

캐롤라인과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  
켈렌 릭스

60

우리 예언자들의 옥외 침례  
윌리엄 지 하틀리

64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주님의 뜻

나는 리야호나(스페인어 판)가 우리를 안내해 주며, 방향을 가리켜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며, 격려해 주고, 영감을 주며, 친절과 우애 및 사랑을 불러 일으켜 준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면 눈물이 나곤 합니다.

리아호나는 대관장단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음성과 뜻을 전달해 줍니다. 이 월간 잡지는 주님께서 오늘날 나와 우리 가족에게 원하시는 바를 나에게 말해 줍니다. 이 잡지는 또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을 나에게 알려 주고 경고해 줍니다. 우리는 총관리 역원의 현명하고도 시기적절한 권고를 따름으로써 평온한 마음과 화평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잡지를 매우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이 잡지에서 즐거움을 얻고 영원한 원리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이 잡지를 꾸기거나 표시를 해 놓더라도 나는 기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들이 그만큼 이 잡지를 활용하며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할 때 이 잡지를 활용하며, 그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복음이 전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음을 알려 주는 기사를 즐겨 읽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리야호나는 경전 및 축복사의 축복과 더불어 우리를 생명의 나무로 인도해 줄 쇠막대와 같은 위대한 저작물입니다. 이 잡지는 우리에게 좀더 안전한 가운데 걸으며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 줍니다.

이것이 리야호나에 대한 나의 간증이며 또한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여섯 자녀들의 간증입니다.

카를로스 벨라스케즈 솔리스  
비스타 테르모사 와드  
산티아고 칠레 신코 테 아브릴 스테이크

방문 교육

이 기회를 빌어 노르드스 티아르난(스웨덴 판)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잡지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교회에서 부름받은 일을 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관장단 메시지와 결혼 및 가족 관계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다룬 그 모든 기사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방문 교육 메시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내가 방문 교사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큰 영향을 주었으며, 나는 다른 많은

자매님들도 이 점에 동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일해온 나는 여러분이 교회 및 가정에서 가르침의 표준을 높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관장단 메시지로 인하여 나의 간증은 강화되었으며, 그 메시지는 곧 경전 말씀이므로 거기서 찾는 모든 권고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잡지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연차 대회 보고 말씀이 그 대회가 끝난 후 얼마 안 있어 발행되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게르터 울스트롬  
주일학교 교사  
스웨덴

성도의 벗

나는 성도의 벗을 13년째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흥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말일성도로서 겪게 되는 공통된 경험을 함께 나누며 한 마음이 됩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에 관한 기사를 더 많이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도의 벗을 읽어야만 합니다.

이 인선  
화곡 와드  
한국 서울 강서 스테이크

유일한 메시지

1955년 이래 교회 회원이자 미술가로 활동해 온 나는 장엄하게 떠오르는 여러분의 "별"(독일어로 디 스테르)을 존경합니다. 그것은 이제 가장 훌륭한 정기 간행물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일한 메시지로서 그 잡지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훌륭한 삽화가 나오는 것이 기쁩니다. 그 이름을 좀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는 데, 위대한 미술가의 작품을 광범위하게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의 거장 카알 블로크의 작품은 탁월한 것이지만 램브란트와 벤 다이크 및 테라크르와의 작품도 보고 싶습니다.

노라 잔슨 메이어  
와딘 크스빌  
네덜란드

1990년 3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언더,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앨 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크로트

교문: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록, 제프리 알 홀런드, 프란시스 엠 기번스,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통 권: 제287권, 제27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0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0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1990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PBMA9003KO  
Printed in Korea 3/90

# 마음의 큰 변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참된 회개를 이루는 토대가 됩니다.  
참으로 죄를 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 일반

적인 의미에서 교회 회원이란 교회 회원 기록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적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정의에 의하면 우리 교회에는 칠백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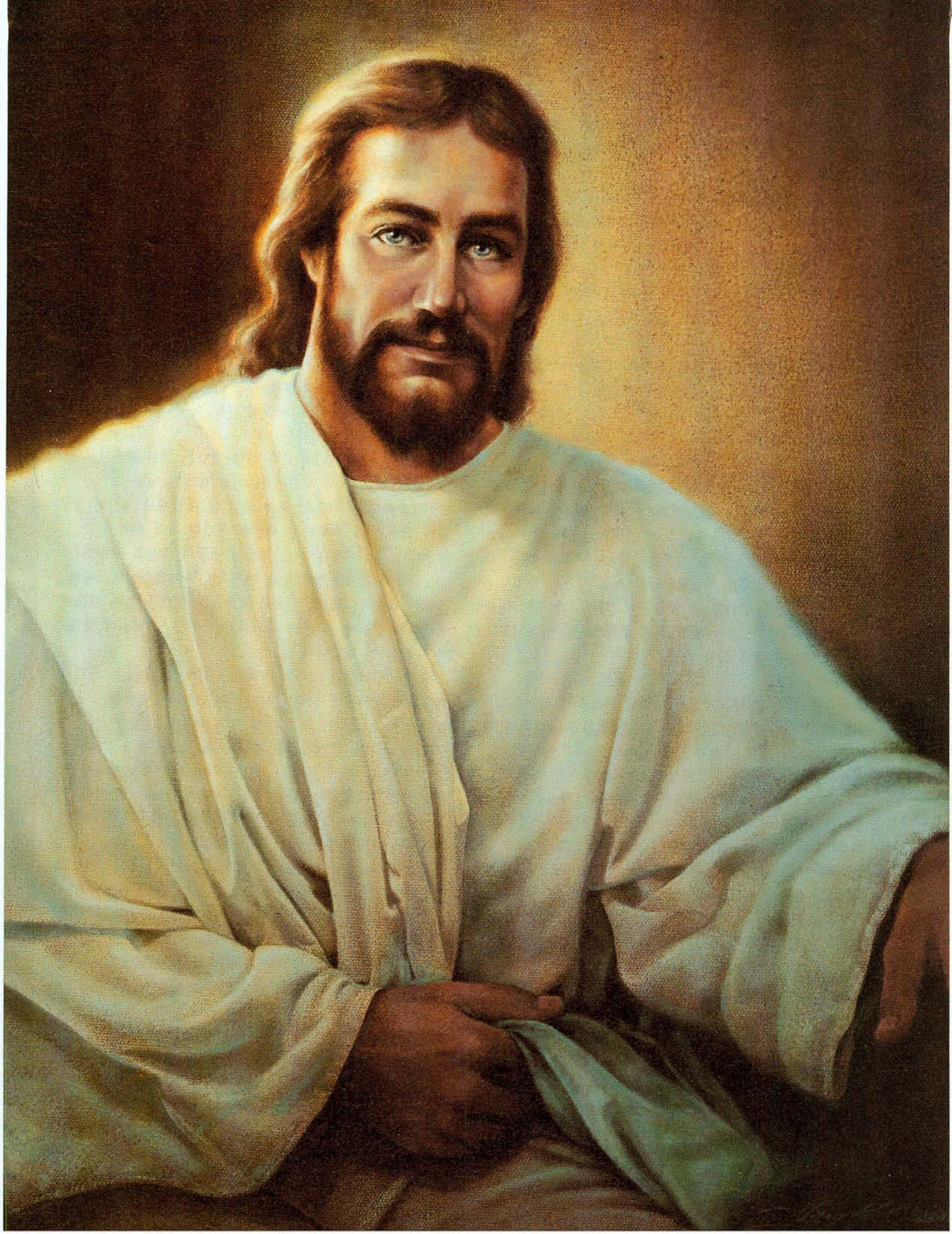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왕국에 속한 회원을 정의하시는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것이 나의  
교리니 곧 누구든지 회개하여 내게로 오는 자는 나의 교회의 회원이니라”(교성 10 : 67)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회원은 단순히 기록상의 회원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중요한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속임수의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자유를 억제하고 행복을  
제한한다는 견해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표준은 때때로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일상적인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차단시키는 울타리와 사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복음의 계획은 인간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첫번째 개념은 이러한 것입니다. 즉, 복음  
원리는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요 지침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주의 계명이...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시편 119 : 97~98, 105, 111)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영원한 진리, 즉 복음 계획이란 행복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악함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오직 비참과 속박과 어둠에 처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두번째 중요한 개념은 회개가 신앙의 원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의 두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첫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주님을 믿는 신앙이 참된 회개에 선행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속죄의 희생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리하이는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음”(니파이서 2:8)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공덕 만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23)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리신 구세주의 완전하고 죄없는 생애가 아니었다면 죄사유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단순히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습관과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탁월한 의지력과 자제심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세주를 전혀 생각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공공연히 그분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행동의 변화는 그것이 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으로 죄를 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참된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이해해야 할 세번째 중요한 원리는 회개한 행동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왕이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훌륭한 실교를 마쳤을 때 백성들은 모두 그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로 볼 때 이 백성들은 그가 약속한 구속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전능하신 주의...영은 우리,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행하게

하시나이다.”(모사이야서 5:2)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의 영향을 통해서만 오게 되는 이 큰 변화를 겪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가 새로운 탄생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깨끗치 못한 죄 가운데서 살던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활에 적용시킴으로써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개념은 경전 용어로 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린도후서 7:10 참조)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잘못 행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을 찾기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때로 그들의 행동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비참함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들의 슬픔은 그들의 잘못이 밝혀지고 형벌을 받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느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경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 군데나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니파이 민족이 종말을 맞이했을 때 몰몬은 그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회개하는 중에 슬피한 것이 아니요, 주가 저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에게 행복을 용납치 아니하매,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 슬피하였음이라. “저들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예수께 나아오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죽기를 원하였”습니다.(몰몬서 2:13~14)

동반구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백성들 가운데서 일했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위시하여(고린도전서 5:1 참조) 성도들 간에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바울은 날카롭게 꾸짖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꾸짖음을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을 볼 때 그들이 문제를 바로잡았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을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고린도후서 7:9~10)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슬픔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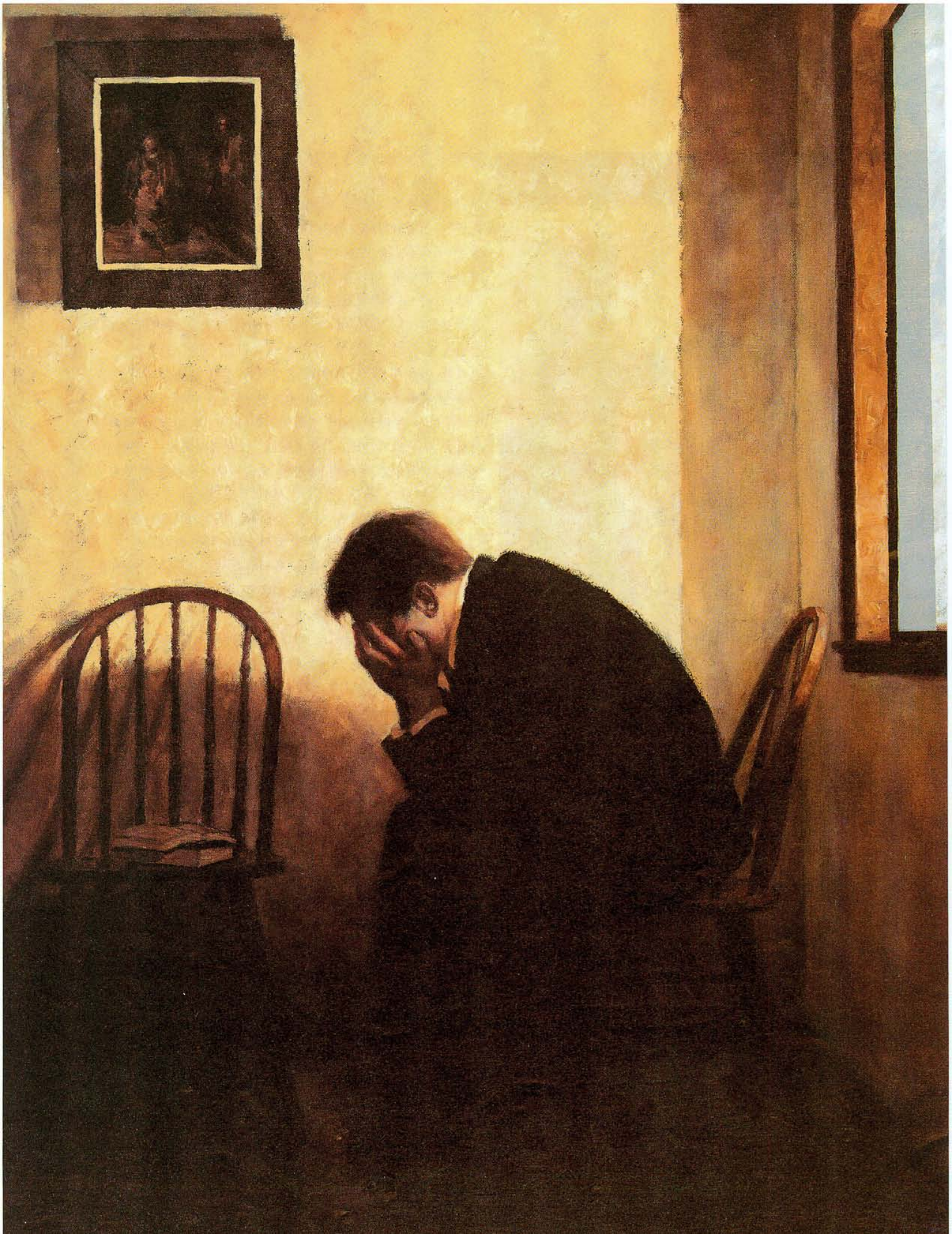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구세주, 즉 모든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 고뇌와 고통을 겪도록 했음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구세주께서는 온 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고뇌가 경전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참된 회개의 절대적인 선행 요소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다음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보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더욱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세주의 강력하고 심오한 권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요한계시록 3:20)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기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으셨음을 유의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손짓하고 우리가 단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아 들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앙에 관한 모로나이의 위대한 설교에서 이 원리는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든 혹은 우리의 어떤 부분이 불충분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사와 권세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합니다.

모로나이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나의 사랑은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흠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이더서 12:27)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훌륭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바로 그 근원이 변화되고 재형성되어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다른 많은 경전 구절에서도 여러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이사야 40:29)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린도후서 12:9)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 회개와 용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두려워 하며 떠는 자는 강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시와 진리에 따라 찬양과 지혜의 열매를 맺으리라.”(교성 52:17; 니파이일서 17:3; 니파이서 3:13; 교성 1:28; 133:58-59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섯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은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실망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며 여기에는 거의 깨닫지 못할 만큼 느린 성장과 변화가 포함됩니다. 경전에는 극적으로 생의 변화를 겪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놀라운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마 이세,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밤늦도록 기도하던 이노스, 라모나이왕 등이 있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한 이와 같은 놀라운 예를 통해 속죄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호력을 미침을 확신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 관해 토론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변화가 실제적이고 강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이 아닌 특별한 예외의 경우였습니다. 바울이나 이노스, 라모나이 왕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회개의 과정이 훨씬 더 미묘하고 깨닫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매일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 갑니다. 그들은 조용히 선을 행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였으되 저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9:20)고 한 레이맨인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의 닻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닻을 던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실망하고 낙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좀더 그분과 같이 되려고 매일 기울이는 노력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먼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즉 주님께서 사용하신 용어대로 회개하여 그에게 나오는 의미에서의 교회 회원으로 자격을 갖추려 한다면 여섯 가지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복음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이며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참된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째, 참된 회개에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포함됩니다. 네째, 이 큰 변화의 한 부분은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서서 도움을 구하기만 한다면 모든 죄와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시며 충분한 은사를 내려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회개가 놀랍고도 극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처럼 되는 길로 움직여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생활에 적용시켜 날마다 그에 따라 생활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 불리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원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교회에 속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 지옥 문이 저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교성 10:69)

나는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돕기 위한 토론

1.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 이름이 공식적인 기록에 오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주님께서서는 회개하여 그에게 나아오는 자를 “나의 교회 회원”이라고 하셨다.
2.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참된 행복을 찾게 해주는 지침이다.
3. 주님을 믿는 신앙은 의미있는 회개의 기초를 이루게 한다.
4. 회개는 행동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수반한다.

# 집안에서 주님을 기억함

**목적:**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교성 88 : 119)

**두** 아들을 둔 젊은 어머니는 집에서 부업을 하라 교회의 부름을 수행하라, 몹시 바쁘게 지냈다. “어린 자녀들을 돌봐 줄 시간도 낼 수 없을 정도였어요.”하고 그녀는 회상한다. 그녀는 너무나 일에 열중하여 자녀들이 이상한 행동으로 그녀의 관심을 끌게 될 때가 많았으며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참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활동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기도, 노래 및 재미있는 활동으로 보내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참으로 즐기게 되었다. 그녀는 작은 사랑과 관심이 가져다 주는 결과에 놀랐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가정을 세상과 그 염려로부터 떨어진 성소로 만드는 “비결”의 하나를 발견했다. 초기 성도들은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기도의 집, …학문의 집, …하나님의 집”(교성 88 : 119 참조)이 되게 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와 다른 가족들이 성장하고 자제력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랑의 안식처가 되게 해야 한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가정은 사랑과 이해와



우리는 가정을 우리 자신과 다른 식구들이 성장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천국으로 꾸며야 한다.

신뢰와 환영과 소속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여성의 고귀한 지위”,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162페이지)  
물론 모든 가정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독신 자매들은 혼자 살거나 친구와 함께 또는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살기도 한다. 기혼 자매들 중에도 자녀가 없는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매들은 이미 가족을 다 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 누가 살든 그에 관계없이, 심지어는 우리 혼자서 사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이 주님의 영을 느끼고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는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가 보여 주신 모범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다.

-개인 및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는 가정에 사랑의 영을 불러 들인다.

-그리스도의 그림은 가족에게 그의 모범을 상기시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권한다.

-적절한 음악은 집안에 영이 함께 하여, 시련과 환란의 때에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고무해 준다.

-가정에서의 헌납 기도는 그곳에 영이 거하게 하며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자녀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환경, 복음을 배울 수 있는 밝고 유익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안

1.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토론한다.
2.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가 가정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가정의 밤 자료집 92~97, 186~87, 189~90, 231~32, 235~62, 265~321페이지에서 보충 자료를 참조한다.)

# 난 포기할 수 없어

낸시 팔라시오스

## 남편

알바로는 콜롬비아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처음으로 마라톤 경주에 참가했다. 놀랍게도 그는 우승을 했다.

그후로 그는 달리기를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육상화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꽤 비쌌다. 그의 부모는 여덟 식구를 부양하기에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운동화를 사 달라고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가 달리기를 하려고 굳게 결심을 한 것을 보고 운동화를 사 주었다.

알바로는 고등학교 육상부에 가입하여 매일 훈련했다. 그러나 첫 시합일이 거의 다 되었을 때는 그의 운동화가 거의 다 닳아 버렸다. 경기 2주 전에 운동화는 바닥이 떨어져 너덜거렸다. 알바로는 부모에게 다시 사 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실을 찾아서 헤진 신을 꿰매었다.

알바로는 그가 수선한 운동화를 신고 경기를 위해 연습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꿰맨 실이 닳아 끊어지기 시작해서 경기 이틀 전에는 운동화 바닥이 다시 떨어졌다. 그는 운동화를 꿰매는 데 뭔가 더 튼튼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한참 생각한 뒤에 철사를 구해 운동화를 꿰맸다.

경기가 있던 날 알바로는 힘차게 출발을 하여 선수들이 트랙을 도는 동안 그들과 함께 편안하게 달렸다. 몇 바퀴를 남겨놓고 그는 선두로 달리기 위해 앞으로 뛰쳐 나왔다. 그때 철사가 풀어지면서 그의 발을 찌르기 시작했다. 철사가 피부에 찔려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난 포기할 수 없어!"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굳은 결심으로 달린 그는 1등으로 테이프를 끊었으나 발은 여기 저기 찢겨 피가 흘렀다.

세월이 흘러 가며, 나는 남편의 결심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눈보라 속에서도 훈련을 하고 한참 달리기를 한 뒤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다. 때로 나는 힘든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발바닥을 찢겨 피흘리면서도 결승선으로 뛰던 그를 생각한다.

요즘에는 알바로가 마라톤 경주에 참가할 때면 나는 결승 지점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나는 내 생애에서도 비슷한 결심을 하여 언젠가 더 위대한 경기, 즉 인생의 마라톤에서 승리하리라는 소망을 가져 본다.\*



# 이미 어린 아이가 아닌 소년

캐시 클리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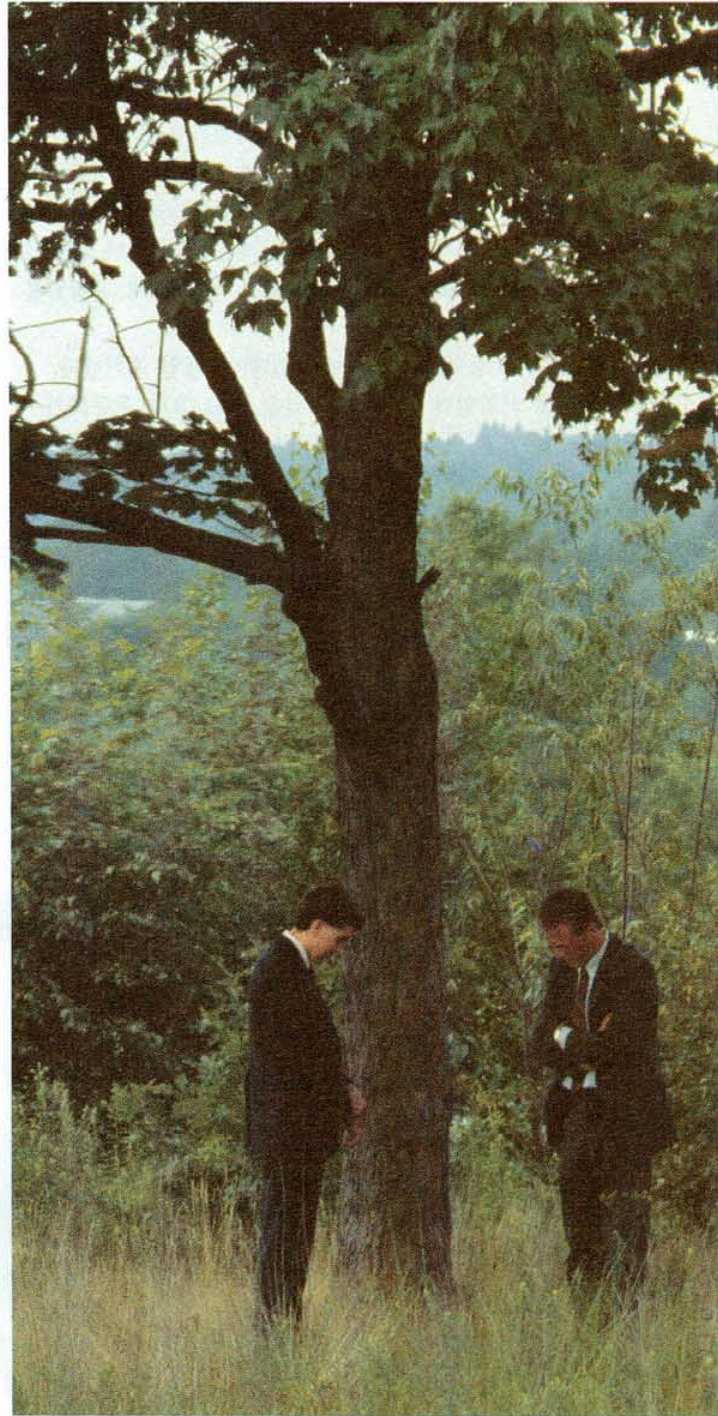
개종하여 미국에서 살고있는 열 다섯 살의 캄보디아 소년이 연령은 선교 사업의 장애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매사** 추세즈 로엘시 락 스트리트 50번지는 인구 10만의 이 도시에 정착한 수천 명의 동남 아시아인 가족이라면 누구든 자기 집처럼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락 스트리트 50번지는 3년 전에 침례를 받은 15세의 캄보디아 소년인 치아 투츠의 집이다. 로엘 지부의 회원인 이 훌륭한 소년은 다른 많은 아시아인 친구들이 침례받는 데 직접 관련이 있었다.

“가족과 함께 내가 새로운 나라로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았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 걱정하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하고 치아는 말한다. “나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 관해 좀더 배우고 그분께 돌아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친구들도 진리를 알고 나와 같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아의 이야기는 두 명의 장로인 폴구즈와 가렛 블랙이 매사추세츠 보스턴 선교부로 임무 지명을 받은 1987년에 시작된다. 로엘에는 여러 해 동안 장로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그 지역에는 두 캄보디아인 가족만이 교회의 회원이었다.

1987년 4월 11일에 쓴 구즈 장로의 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오늘 아름답고 쾌창한 봄날 블랙 장로와 나는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포트 힐 꼭대기로 올라갔다. 우리는 로엘에서 아시아인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 가운데 영이 거할 수 있는 피난처로써 축복하시도록 간구했다.” 두 장로 모두 영을 느꼈다. 일지는 계속된다. “우리는 아시아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서 알게 될 수 있는 장소로서 로엘 지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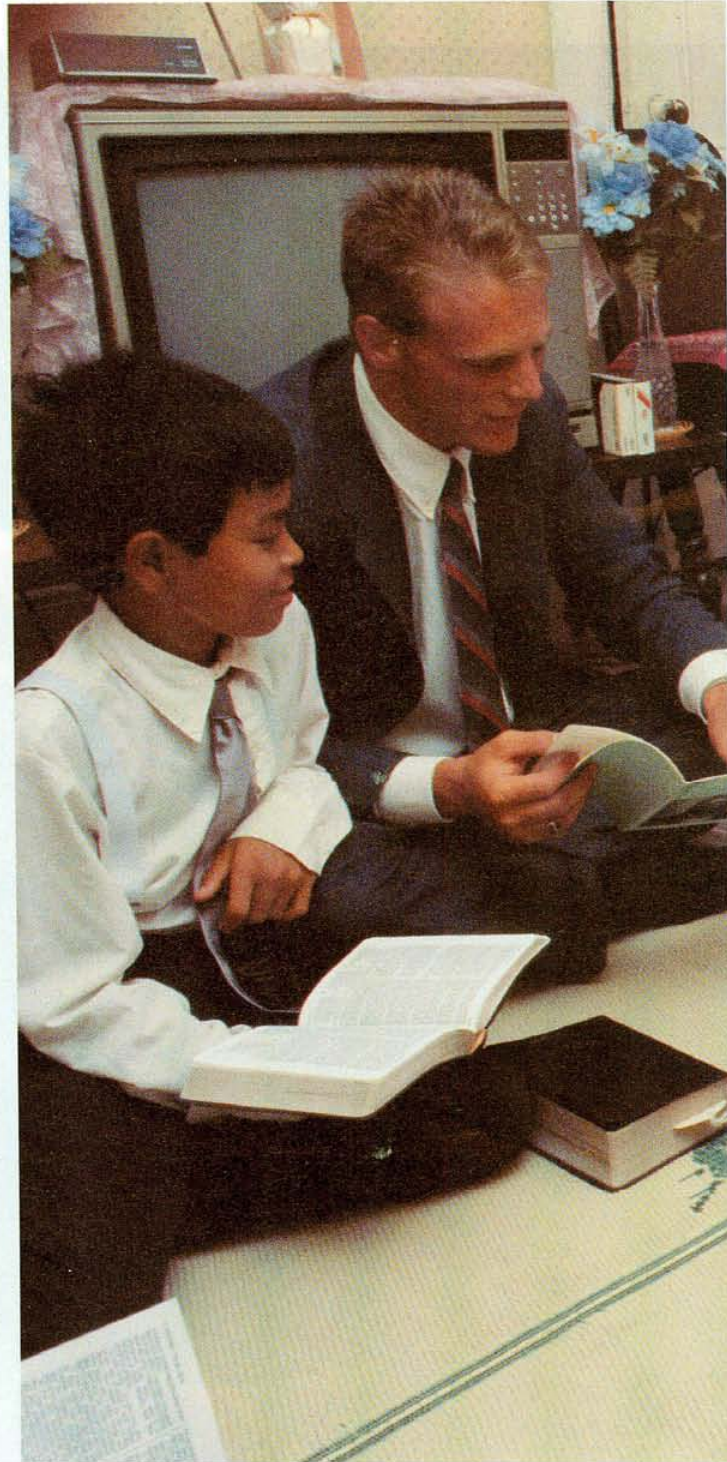


치아와 장로들이 처음 만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었다. 구도자를 찾고 있던 그들은 우연히 그의 집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식구들 중에서 치아만이 영어를 할 줄 알았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그들에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찾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그들에게 다음 일요일에 그를 교회로 데리고 가도록 약속을 했다. 구즈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치아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우 성숙하여 몸은 열 두 살이나 정신 연령은 스물 다섯 살 쯤 되었습니다.”

치아의 부모님은 장로들에게 “아들이 스스로 몇몇 기독교회를 방문했으나 그들 중 어느 곳도 옳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치아가 것처럼 성숙했던 것은 분명히 그가 어린 시절에 수많은 일을 경험한 결과였다. 미국에서 피난처를 찾은 많은 캄보디아인들과 마찬가지로 치아와 그의 가족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생존자들이다. 치아가 부모님과 함께 캄보디아를 탈출하여 태국에 있는 카비단 난민 수용소로 향했던 1979년에 그는 네 살이었으며 누이 소프는 열살이었다.

그들은 1984년까지 난민 수용소에 살았으며, 그 해에 윈조 기관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매사추세츠 로엘에서 살았다. 치아는 현재 두 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런디는 여덟 살이고 다니는 여섯 살이다.



1980년 11월 15일  
1980년 11월 15일  
1980년 11월 15일  
1980년 11월 15일  
1980년 11월 15일  
1980년 11월 15일  
1980년 11월 15일  
1980년 11월 15일  
1980년 11월 15일  
1980년 11월 15일

치아는 선교사들을 데리고 사베스 봉과 그녀의 세 자녀를 방문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겨우 글자를 깨우쳤을 뿐이었다.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자 했다.



“상로님들과 함께 갈 때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요.”하고 치아는 말한다. 그는 남을 돕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한다.







토론을 듣고 성찬식 모임에 참석한 치아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음을 알았다. “사람들이 너무도 좋았으며, 나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경전을 배우며 몰론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치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악은 나를 매우 행복하게 합니다.” 그의 부모는 선교사 토론을 듣고 종종 교회에 참석하여 치아를 열심히 도와 주고 있으나 아직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다. (불교의 스님인 치아의 아버지는 다른 종교에 속하게 되면 파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침례를 받은 치아는 장로들과 매우 친한 친구가 되었다. “거의 매일 치아는 우리 아파트에 오곤 했습니다.” 구츠 장로가 회상한다. “그는 우리가 방문해주기를 원하는 친구와 친척에 대해 알려주곤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을 모두다 방문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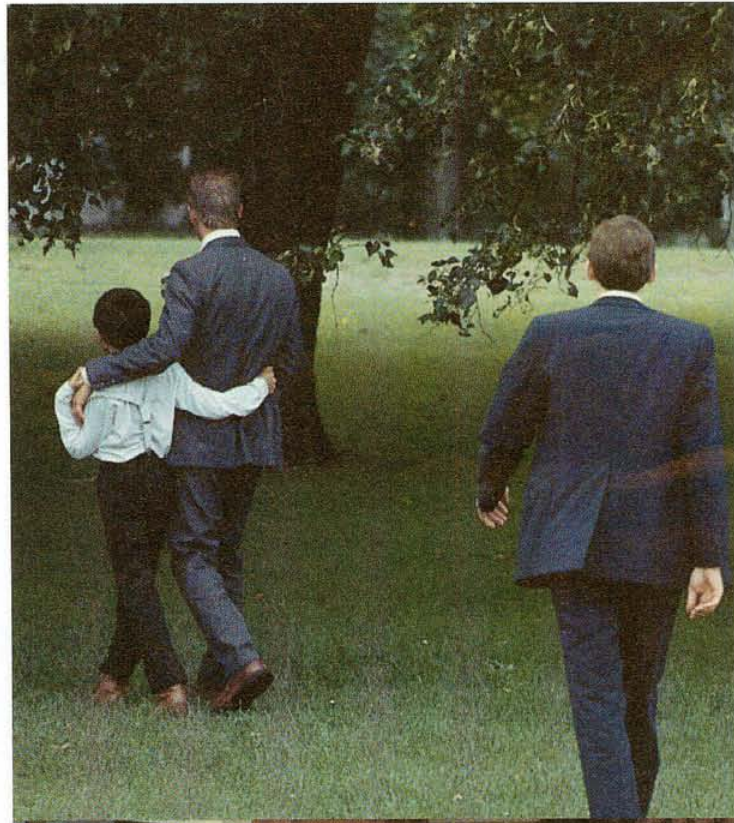
미소를 지으며 치아는 그가 장로들에게 소개한 첫번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소통 치아는 학교에서 나와 한반이었어요. 처음에 나는 그가 무서웠습니다. 그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에게 내 친구 블랙 장로와 구츠 장로를 만나보지 않겠냐고 물어 봤습니다. 소통이 그러겠다고 했을 때 나는 놀랐지만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치아는 소통과의 토론 시간에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공과를 통역하기를 즐겼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으며 성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토론은 재미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치아가 새로 찾은 지식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서 축복을 받았다. 이웃에 사는 네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 소폰 행과 그녀의 나이 드신 어머니 흥행은 치아가 노력한 결과 침례받았다. 소폰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치아는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치고 행복하게 해 줄 두 남자를 만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겠다고 하자 치아와 장로들이 매주 우리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었다. “장로님들과 함께 갈 때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토론을 듣고 성찬식 모임에  
참석한 치아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음을  
알았다. “사람들이 너무도  
좋았으며, 나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경전을  
배우며 몰몬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즉,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즐겼습니다.”

전에 치아의 초등학교 회장이었던 이렌 단주는 이렇게 회상했다. “일요일마다 그는 새로운 친구를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내게 소개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나이를 알려주고 그들이 편안한 느낌을 받을 때까지 함께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그의 공과반으로 갔습니다. 그는 1년 동안 매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어린 선교사로서 치아가 보여준 근면함과 열성의 한 예를 구츠 장로는 그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점식먹으러 집에 와서 선교사 지역 대회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떤 일인지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치아였다. 그는 나에게 블랙 장로와 함께 로엘에서 산지 일년된 캄보디아인 가족인 봉 가족을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들이 참석할 교회를 찾기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군대의 조종사인 그녀의 남편은 포로가 되었으며 세베스 봉과 세 자녀 체테나, 넷드라, 툴라는 총살이 예정된 삼일 전에 가까스로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다.

치아는 장로들과 함께 처음으로 봉의 가족을 방문했던 때를 회상하며 미소짓는다. “모두 열심히 배우고자 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봉 가족은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물문경을 사용했지만 복음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했다. 치아는 토론을 통역하고 교회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등 장로들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츠 장로는 일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썼다. “하루도 빠짐없이 치아는 사베스 옆에 조용히 앉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그녀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복음 메시지에 조금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았다.”

사실 치아는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의 간증이 커졌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니파이삼서 27장 7절을 읽은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나의 이름으로 하며 교회도 나의 이름으로 부르라. 또한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교회를 축복하시게 하라’ 나는 전에는 이 구절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교회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불려야 합니다!”

이 성구는 또한 치아가 마음 속으로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사실, 즉 만일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복음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도움을 청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다.

봉 가족이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을 때 치아는 참으로 기뻐했다. 구츠 장로는 그날 저녁을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치아는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가까운 공원에 있는 작은 나무숲 옆에 차를 세워달라고 블랙 장로와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차례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치아는 내 어깨에 올라 탔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치아는 다정스럽게 아래를 내려다 보며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성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구츠 장로님, 그렇지요?”

“그래, 치아, 확실히 그래요.”

“나는 알아요. 난 그것을 느꼈어요.”

봉 가족은 일주일 후에 침례받았다.

치아는 낚시질과 농구를 좋아하며 비디오 게임을 즐겨한다. 미국에 있는 다른 캄보디아 청소년들처럼 그는 부모님들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른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여가가 많지 않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언어를 빨리 배워서 집안으로 들어온다. 치아는 특히 운이 좋았다. 그는 국민학교의 정규 수업을 받는 한편 사설 강습소에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강습소 관리자인 조안 오브라이언은 치아를 특별한 아이로 생각한다. “나는 그가 캄보디아인들 가운데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얼마든지 물이 들어가는 주전자 같습니다.”\*

# 복음대로 단순하게 생활함

글렌 엘 러드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희

우리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교회의 거의 모든 원리와 교리에 따라 단순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법으로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일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 오래

전에 나는 뉴질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도착하던 날 나는 처음으로 매튜 카울리 선교부장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후 이년 동안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 기간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나는 선교 본부에서 봉사하며 카울리 선교부장과 뉴질랜드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교사였고 무척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그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죽은 지 이미 3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해 준, 신앙을 강화시키는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카울리 선교부장은 항상 가르치는 내용들을 단순하게 하고자 애썼습니다. 사실상 그는 복음의 제일 원칙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교회에는 복잡한 원리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면서 아름답고 아름다우면서 단순합니다.”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도 같은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우리가 직접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거나 가르칠 때 이해력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카울리 선교부장은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단순함을 이해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그의 행동으로 당혹감을 느끼고 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그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그에 대한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카울리 형제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대답은 카울리 형제가 직접 주님께 나아가 그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대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것도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카울리 형제는 다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선교 지역에서 카울리 선교부장의 여행 동반자로 있을 때 나는 그로부터 가방에 갈아 입을 옷 두어 벌 정도만 챙겨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 우리 갑니다.’하고 말하면 장로님은 가방을 들고 차에 탄 뒤 운전을 하십시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묻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나는 즉시 가방을 들고 차에 타곤 했습니다. 짧고 의욕에 찬 선교사였던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도 되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수 킬로미터를 달린 뒤 그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습니까?”

“네.”하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가다가 주님께서 차를 돌리라고 하는 곳에서 돌리고 우리가 가 있기를 바라시는 곳에서 차를 세울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마오리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카울리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드린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장이 그들에게 와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뉴질랜드에 있는 꽤 먼 도시의 우체국을 향해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 우체국 옆에는 두 명의 자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한 자매가 다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그가 곧 올거라고 했지요.”

카울리 부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자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부장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부장님이 이곳으로 오실 줄 알았지요. 부장님은 항상 우체국으로 바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부장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카울리 부장은 영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는 결코 무질서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것처럼 적게 계획하고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일을 수행했습니다.

하루는 카울리 부장과 내가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영향력 있고 훌륭한 마오리 사람인 스트루이트 메하 형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정이자 지도자로서 대가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카울리 부장과 메하 형제는 오후 내내 교회와 다른 흥미있는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메하 형제는 현관 밖에서 마오리어로 그의 대가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에레 마이 키 테카이”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에레 마이 키 테 카라키야” 이 말은 “오너라, 저녁 식사 시간이다. 기도할 시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사방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큰 거실에 모였습니다. 방에는 가구가 거의 없었으며 모두 둥그렇게 원을 지어 앉았습니다. 메하 형제가 원의 상석에 앉았으며 카울리 부장이 그의 왼쪽에 그리고 나는 카울리 부장의 옆에 앉았습니다. 메하 형제의 오른쪽에는 여덟 살 가량의 어린이가 앉았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다른 어린이들이 어른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하 형제는 옆에 있는 어린 소년에게 “너부터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소년이 기도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소년은 기도 대신 성구의 장과 절을 말한 뒤 성구를 외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옆에 앉아 있던 젊은 사람이 관련된 성구를 외었습니다. 네 명이 성구를 외우고 난 뒤에야 나는 원에 둘러 앉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성구를 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어린이가 다른 사람이 외운 것을 암송하기 시작하자 그는 곧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나의 차례가 되고 그 다음 카울리 부장까지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메하 형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족 기도 및 자녀들이 경전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예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길거나 복잡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단순하고 진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경전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답이 단순한 방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복음의 첫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은사입니다. 그 누구도 충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 생활에 기복을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더 필요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주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분께 겸손히 나아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약 20여년 전에 플로리다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에 있는 플라비아 살라사 고메스라는 자매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플라비아는 원래 멕시코 출신으로 그곳에서 열두 살 때 교회에 입교했으나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남편의

회개하기 위해 참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릇된 일을 중단하고 잘못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수정하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구가 약 오백만명 쯤 되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자신 만이 말일성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한 살된 아기가 있는 데 아직 명명, 즉 신권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암에 걸려 있으며 의사는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신앙을 나타내 보이며 신권 소유자가 자신과 아기를 축복해 주기 위해 산티아고에 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뒤 나는 곧 그 지역에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도미니카의 수도인 산토 도밍고에 사는 우리가 아는 활동적인 말일성도 가족인 달 발렌틴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발렌틴 형제와 나는 산티아고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플라비아가 사는 주소가 우리에게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발렌틴 형제에게 복잡한 거리로 가서 왼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에게 우회전을 하여 도시 중앙을 향해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 거리를 지난 뒤 나는 발렌틴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모퉁이에서 우회전을 하면 그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였으며 우리는 주차할 수 있는 공터를 발견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 봅시다.”

발렌틴 형제는 집밖에 서 있는 주민 한 사람에게 다가 가서 그에게 플라비아 살라사 고메스를 아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 플라비아를 만나 접견을 했습니다. 멕시코를 떠나 교회와의 접촉이 끊어진지 이년이 지났으나 그녀는 지혜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켰으며 매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플라비아가

암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건강하게 되도록 축복을 주어야 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 6개월 후에, 나는 플라비아와 그녀의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좋아졌으며 의사들은 그녀가 완전히 병이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젊은 어머니는 신권의 축복이 필요하였을 때 신앙을 행사했으며 알지도 못하는 선교부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교부장은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것처럼 단순했습니다.

그러한 속삭임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일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권 지도자들은 잠시 생각해 보면 신앙이 어떻게 그가 계획하지도 않은 일을 하도록 인도 했는가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란 기도나 신앙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 참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릇된 일을 중단하고 잘못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려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말할 필요도 있으나 단순하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울리 부장은 회개에 대해 흥미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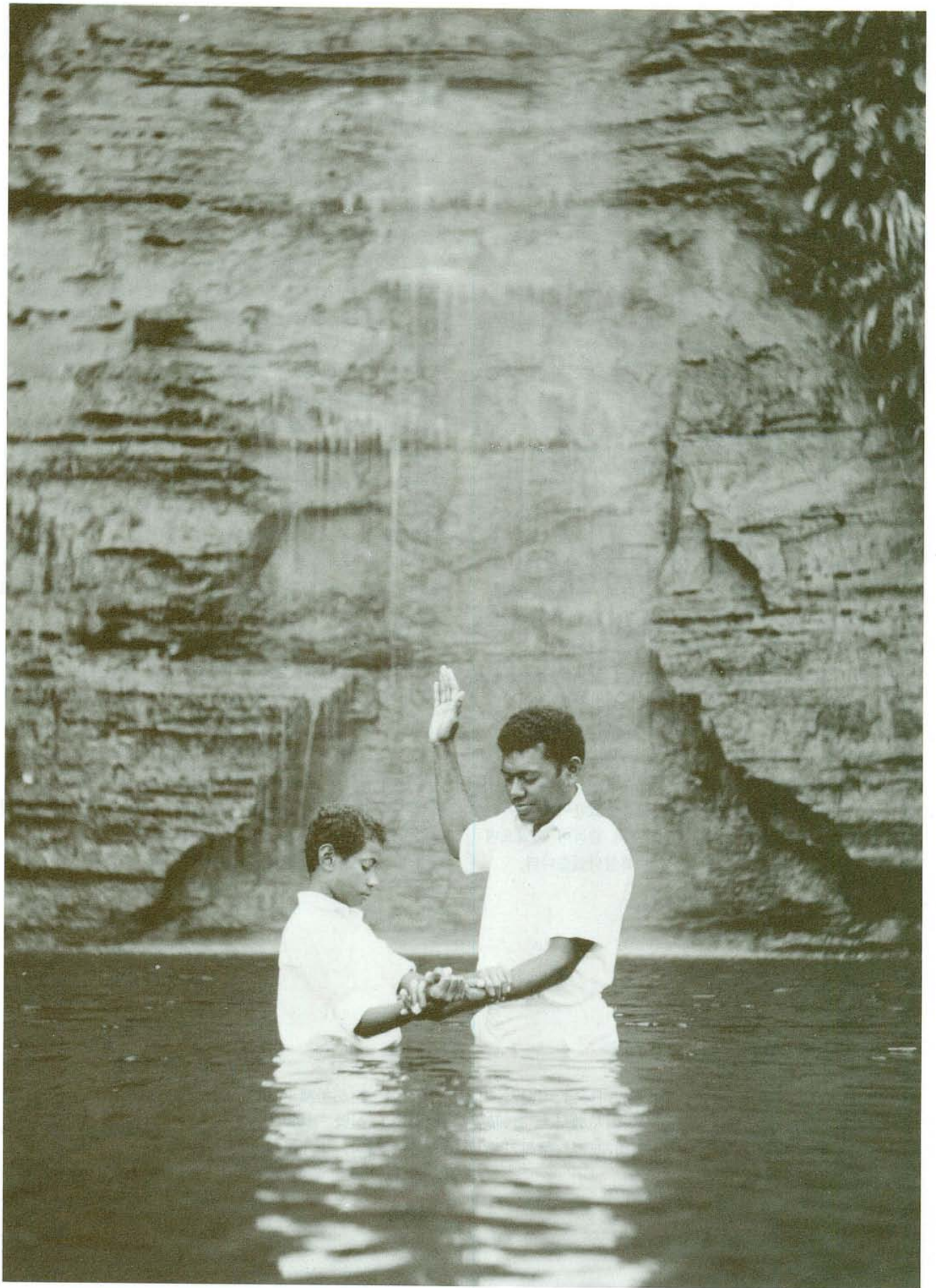
뉴질랜드 동쪽 연안에 있는 작은 마오리 마을에 시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회원이 약 400명 가량 되는 큰 지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여덟 시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차를 몰고 온 카울리 부장은 마을에 도착하자 곧 그의 오랜 친구인 시드를 만나러 갔습니다.

젊은 시절 시드는 훌륭한 운동 선수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었으며 또한 전천후 선수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시드는 미국에 있을 때 칠십인에 성임되었으며 뉴질랜드에 돌아왔을 때는 전 지역에 칠십인이 자기 한 명이었으므로 그가 속할 정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소 비활동 회원이

침례와 확인은 기도와 신앙과 회개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침례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되었으며 지혜의 말씀도 지키지 않게 되었으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부장이며 친구로서 시드를 방문한 카울리 부장은 그가 현관 밖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아 커다란 권련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드는 카울리 부장이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담배를 끄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웃고 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카울리 부장은 진지한 태도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드, 내일 교회에 나와 주었으면 좋겠오. 지부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을 부르려 합니다.”

시드가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간지 오래 됩니다. 새로운 지부장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기 위해 단장할 필요가 없을텐데요.”

카울리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리지요. 바로 형제님입니다.”

시드는 한참 동안 물고 있던 담배를 입에서 뱉 뒤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와 담배를 말씀입니까?”

카울리 부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오, 시드 형제님만 필요합니다. 담배는 필요치 않아요”

그러자 시드는 담배를 현관 앞마당에 집어 던져 버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카울리 부장을 향해 매우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다시는 지혜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십일조를 완전하게 내고 있습니다. 지부장의 부름을 받아들이지요. 합당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가는 지부장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부장님은 제가 복음대로 생활할 것인가의 여부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시드는 그 선교부 내에서 가장 신앙심이 강하고 훌륭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봉사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을 때 최초의 감독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그의 손자가 감독의 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시드의 모든 가족은 현재 교회에서 신앙심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훌륭한 가족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시드가 회개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석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즉시 중단했으며 죽는 날까지 충실한 성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회개에 필요한 전부입니다.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카울리 부장은 시드에게 결코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권의 부름으로서 교회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시드는 그가 부름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빨리 끝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셨으며 시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침례와 확인은 기도와 신앙과 회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것입니다. 침례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하여 신권 소유자 앞에 나아가며 침수에 의해 침례받고 안수를 통해 성신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의식들 또한 복잡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교회의 거의 모든 원리와 교리에 따라 단순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법으로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일은 분명히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으시니, 기도하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앙주시니, 신앙 구하세!

아버지께서 우리가 회개하게 도우시니, 회개하세!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되심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오늘날 위대하신 분—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대관장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는 주님의 살아계신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를 지지하고 도우며 그리스도의 합당한 추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으시니, 기도하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앙주시니, 신앙 구하세!  
아버지께서 우리가 회개하게 도우시니, 회개하세!

# 카페인 : 간교한 중독제

클리포드 제이 스트래튼

**커피**와 그것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을 미국에서 죽음의 가장 큰 요인인 심장 질환에서부터 만성 피로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굴라트, 1984년 [기사 끝에 있는 각주에서 “자료” 참조])

물론 미국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대량 소비하는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다음 결과는 범세계적인 문제점을 대변해 준다.

의료 연구진들은 커피의 소모가 심장 또는 심장에 부속된 혈관 질환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살펴 왔다. 그러나 결정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어려운 일로 남아 있다. 오래 전부터 커피를 마시는 것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타 연구 과정에서 흡연, 연령,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등과 같은 중요한 요인들을 적절히 다루지 못했다. 그 결과 심장 질환이 주로 커피를 마신 결과로 인한 것이었는지 밝혀낼 수 없었다.

그러나 1980년 이래 몇몇 연구 단체에서 카페인의 장기 복용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의학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를 들면

내셔널 보건 통계 센터와 존스 홉킨스 의과 대학의 연구원들은 최근 그들이 지난 30년간 연구해온 커피와 심장 질환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라크르와 외, 1986년)

캐롤린 베델 토마스 박사는 1946년에 연구를 시작했다. 그녀와 다른 의사들은 30년 간 1,040명의 의사 그룹이 커피복용, 혈압, 콜레스테롤 정도 및 흡연에 따른 변화에 대해 기록한 것을 추적했다. 30년 후, 하루에 다섯 잔씩 커피를 마신 대상자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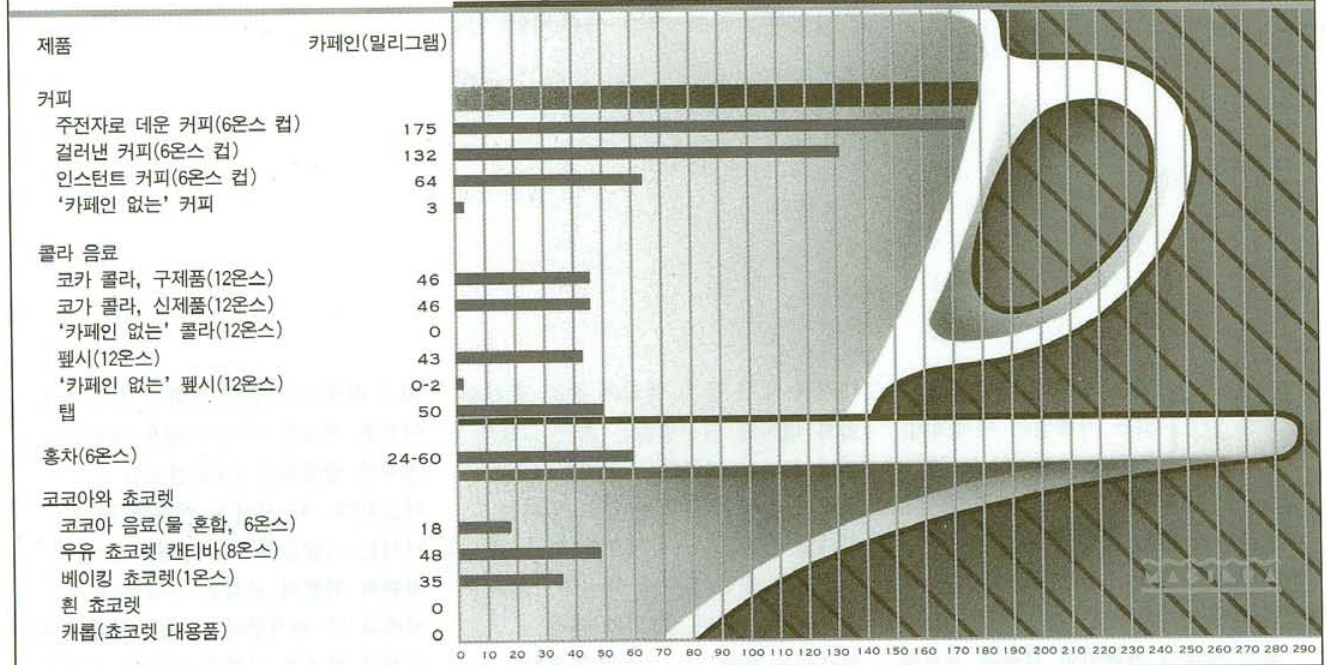
10.7 퍼센트가 심장 질환을 일으켰다. 이것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발생하는 1.6퍼센트와 비교된다. 이 사실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심장 질환의 위험이 금하는 사람보다 두 세배나 더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커피를 심하게 마시다 그것을 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10년 후 전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의 위험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디시에서 있었던 제10차 세계 심장학 회의에서 다른 연구팀은 20년 동안 커피 소모가 심장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이어 외, 1986년) 그들은 1,9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담배를 피우는 숫자, 나이, 콜레스테롤 정도 및 심장 이완 혈압 등의 요인을 조사했다.

그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과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큰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 결과는 하루에 다섯 컵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심장 질환, 그중에서도 특히

중독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인체에 해로운 습관성 약물이 포함된 어떤 음료도 사용하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권고해 왔다.

## 카페인 들어 있는 것



1. 코코아와 초코렛 생산품에는 카페인-자극제인 디오브로민과 관계가 있음-이 함유되어 있다.

코코아에는 6온스당 228~284밀리그램, 초코렛에는 8온스당 480밀리그램이 들어 있다.

2. 흰 초코렛에는 카페인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그것은 초코렛의 부산물이다.

급작스럽게 격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심근 경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크다고 하는 가설을 입증해 준다.”(다이어 외, 1986년 22페이지)

심근 경색이라는 용어는 혈액 공급의 장애로 인해 심장 근육 세포의 작은 부분이 죽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므로써 카페인을 피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 행해진 여러 의료 조사는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 중 40~50퍼센트가 궤양, 대장염 또는 설사 등과 같은 위장 문제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굴라트, 1984년) 카페인이 없는 커피는 위산 배출을 자극한다. 이것은 커피콩을 볶을 때 위장 내부를 자극하는 산과 기름을 내보내기 때문이다.

의료 연구진들도 커피의 소모가 심장 또는 심장에 부속된 혈관 질환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랫동안 의심해 왔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13,000명에 대한 한 조사에서 지역 병원들은 심근 경색증의 위험성은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경우나 보통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경우가 같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건강 회보, 1982년)

여러 연구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심장 질환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다. 첫째, 커피에는 자극제인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것은 정상적인 심장 박동에 이상을 가져오며 갑작스런 심장 문제를 야기시킨다.(프리니어스 외, 1980년)

둘째, 커피를 마시는 것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 (마티아스 외, 1985년)

따라서 카페인의 잠재력은 체중과도 관계가 있다. 체중이 68킬로그램인 성인에게 “커피 한 잔이나 콜라 한 병은 체중 1킬로그램 당 1밀리그램의 카페인을 줄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 초코렛 한 컵이나 사탕도 체중에 같은 비율의 자극을 줄 수 있다. 이 어린 아이가 콜라를 한 병 마시면...카페인 섭취는 어른이 커피 네 컵을 마시는 것과 비교된다. ...침착하지 못한 것 신경과민, 불면증 및 초조감 등은 신체에 카페인이 있다는 몇 가지 증세가 된다.” (병커 앤드 맥웰리엄스, 1979년 30페이지)

카페인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이해하는 것은 말일성도 부모에게 중요한 것이다. 도표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많은 종류의 음료수와 제품에는 각기 다른 양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비교해 보기 위해 몇 가지 제품을 열거해 본다.

의학계에서 20년 동안 봉사해온 나는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것을 먹거나 마시는 것은 교리와 성약

89편에 있는 지혜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권고하는 바이다.

1972년 2월자 신권 공보(8권 제1호)의 발표문에 따르면, “교회 초기에 지도자들이 ‘뜨거운 음료’는 홍차와 커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일을 제외하면 지혜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해석된 적은 없습니다.

“콜라 종류의 음료와 관련하여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으나, 중독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인체에 해로운 습관성 약물이 포함된 어떤 음료도 사용하지 말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권고해 왔으며 우리도 특별히 이점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음료는 어느 것이나 사용하기를 피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그 이름이 참으로 적절하다. 그것은 우리 신체에 해가 되는 것을 마시지 않도록 현명하게 지시하고 있다.\*

클리포드 제이 스트래튼은 레노에 있는 네바다 대학 의과대학의 해부학 박사이다. 그는 스파크스 네바다 스테이크에 거주한다.

#### 참고 자료

병커, 엠. 엘, 엠 맥웰리엄스, “일반 음료에 있는 카페인” *아메리칸 영양 협회지* 74 (1979년): 30

“카페인: 적게 섭취하는 방법”, *소비자 보고서* 1981년 10월호, 597~99페이지

다이어 에이 알, 디 리그래디. 쉐켈 제이 스태플러, 케이. 린, 오 폴, 및 엠. 레퍼, “시카고 웨스턴 일렉트릭 회사 연구에서의 커피 소비와 20년간의 육신,” *와싱턴 디시에서 개최된 제10차 세계심장학 회의*, 1986년 22페이지에서 발췌.

굴라트 에프 에스, *카페인* 북, 뉴욕 로드, 미드사 1984년 *하바드 의과 대학 건강 회보* 7, 9호(1982년 6월호)

라크르와 에이 제트; 엘 에이 미드; 케이 와이 리양; 시 비 토마스; 티 에이 페어슨, “커피 소모와 심장 질환의 발생” *뉴 잉글랜드 의학 신문* 315(1986년) 16: 97781

마티아스 에스, 시 가랜드, 이 바렛 코너, 디 엘 윙가드, “커피, 플라즈마 콜레스테롤 및 리포프로테인스; 성인 사회에서의 인구 조사”, *유행병학 신문* 121(1985년) 896~905

맥콩키 브루스 알, *물론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6년, 845~46페이지

프리니어스, 알 제이, 디 알 제이콥스 이세, 알 에스 크로우 및 에이치 블락번, “커피, 홍차 및 브이 피 비”, *만성 질환 신문* 33 (1980년): 67~132  
스트래튼 시 제이, “크산틴: 커피, 콜라, 코코아 및 홍차” *브리감 영 대학교 연구서* 20 (1980년): 371~88

# 자녀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침

가족이 일상 생활의 일부로 진지하고 겸손하게 꾸준히 기도 드리게 되면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어린** 이들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부모는 자녀를 진정으로 존중하며 인도할 때, 감사와 축복, 위로와 인도, 신앙과 사랑을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게 된다.

영성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계명에 따라 생활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정기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하느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가족이 일상 생활의 일부로 진지하고 겸손하게 꾸준히 기도 드리게 되면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서로의 약점을 고백하고 가정과 그 가정에 거하는 사람들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도록 간구하는 것보다 가족의 긴장을 더 훌륭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63년 6월호, 531페이지)

기도에 대해 자녀에게 설명할 때 우리는 (1) 감사를 표하고 (2) 단합과 사랑을 간구하고 (3)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며 (4) 유혹을 물리치거나 극복할 힘을 간구하는 것을 기도에 포함시킨다.

**감사.**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친절하심과 축복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한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가정에 대해, 우리가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감사를 느낄 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자신의 감사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가정에 대해, 우리가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감사를 느낄 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복음의 회복, 자연의 아름다움, 안전한 여행, 우리 가족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에 대해 감사드릴 수 있다.

단합. 기도하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큰 축복은 가족의 힘이다. 자신과 자녀를 대신하여 기도로서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사랑의 위대한 결속이 이루어진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한 가정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태도를 무관심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던 그의 딸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착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감격했다.

스스로 겁장이라고 생각하던 수줍음 많은 소년은 그의 부모가 “착하고 온순한 아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자부심과 자존심을 느꼈다.

또한 부모인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와 이해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위안을 받게 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와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 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받을 수 있다.

기도는 가족 각자를 서로 하늘의 권세와 영향력으로 단합시켜 준다. 그것은 또한 결혼한 자녀나 선교 사업

또는 학업으로 멀리 떠나 있는 자녀와 계속해서 가까운 관계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친척을 위해 기도할 때 확대 가족에 대한 가까움도 경험할 수 있다.

필요 사항. 기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필요 사항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위안이 되는 확실한 근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신앙이나 간증을 잃은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했다. “병난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야고보서 5:16) 우리는 또한 일자리의 선택, 금액이 큰 물건 구입, 이웃을 돕거나 교회 부름에서 봉사하는 방법,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실시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우리의 필요 사항이 간절하다면 기도도 간절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갯세마네 동산의 구세주에 대해 말씀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누가복음 22:44)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만사를 훌륭히 행하신 주님께서 그의 형제인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포함하여 모든 기도가 다 같지는 않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신앙에 찬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레위기 1:9)이기 때문입니다.”(성도의 벗, 1976년 9월호, 9페이지)

저항.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과 유혹에 대항하는 큰 힘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을 무장하게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은 평화와 사랑,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강화된 장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유혹을 극복해낼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 기도는 언제 해야 하나?

우리는 은밀하게, 가족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은밀하게 순수한 동기를 갖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6:5~15 참조)

우리가 매일 주님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러 나아가갈 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을 가장 잘 성취하는데 필요한 힘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경험을 들려 주게 되면 그들은 매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가치에 대해 배우게 된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루에 두번, 아침과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이 기도할 사람을 지명한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 각자가 돌아가며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가족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 보는 자녀들은 평생토록 그들을 떠나지 않을 습관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글쎄,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편리한 시간이란 결코 오지 않는다. 반면에 가정에서 이러한 습관을 들여 자녀가 결혼한 후에 부모가 자녀를 방문해서도 자연스럽게 태도로 함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는가?”(용서가 낳는 기적, 230~31페이지)

기도하기 전과 후의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단순히 매일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 빨리 기도를 마쳐야지”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기도의 의미를 크게 축소시키는 것이 된다. 주님과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갖추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기계적이고 생명없는 기도가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로부터 빨리 빠져 나오려는 것은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별 효력도 없고 의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가족은 가족 기도를 조용하고 가치있는 경험의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를 하기 위해 가족을 불러 모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들이 하고 있던 일에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기도를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며 왜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해 보자.’

“가끔 돌아 가면서 기도하다가 각 가족에게 특별히 기도로 간구하고 싶은 특별한 필요 사항이나 축복을 말하게

합니다.”

“신디아는 학교에서 시험칠 준비하는 가운데 분명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저녁에 있을 피아노 발표회에서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축복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은 소년단에서 공로 뱃지를 타는데 필요한 요건을 완수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드라는 상호부조회 공과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가 각자의 필요 사항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필요 사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자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침”, 엔사인, 1976년 1월호)

때때로 가족 기도 시간은 다른 때 같으면 있을 듯 하지 않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앤 벅크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십대 아들은 그와 함께 문제를 토론하려고 하기만 하면 긴장하고 우울해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분이 괜찮을 때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이 아침에 갖는 가족 기도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에 집은 조용했으며 우리는 차분하고도 진지한 느낌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토론을 하기 전에 기도를 드렸으며 긴장이 완화되었음을 알았습니다.”(엔사인, 1976년 1월호, 37페이지)

###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모범을 통해서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는 대로 그들도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 가족 기도 이외에도 우리는 자녀 각자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가족 중 나이가 사람이 기도하는 말을 조금씩 따라서 할 수 있다. 우리가 특별히 그들에게 의미있는 것에 대해 기도한다면 그들은 기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기도의 네 단계를 배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본적인 단계는 어린이가 기도의 필수 요건을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적절한 존칭어를 소개해 준다.

어떤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와 함께 했던 훌륭한 기도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날 저녁에 나는 세 살된 딸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당시 주변에 있던 물건들, 즉 이불, 고양이, 나무 등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러한 하찮은 기도를 들어 주실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즉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내 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시며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잘 알고 계시다는

강한 간증을 영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영은 아이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으며 기도와 이 아이에 대해 더욱 경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깨닫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으며 경전에서 그 예를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응답이 느낌이나 따뜻하거나 평화로운 느낌 또는 고요하고 조그만 음성으로 올 수도 있음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응답은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에도 올 수 있다.

자녀에게 기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모범으로 가르쳐 주고자 할 때 우리는 자신의 기도로 더욱 기꺼이 가르침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잠음과 혼란과 세상의 염려를” 떨쳐 버려서 “(그가) 하나님 뉘을 알”(시편 46:10) 수 있어야 한다고 아더 바셋트는 설명한다. 일단 우리에게

그러한 고요함이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집중력을 “영혼 깊숙한 곳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중요한 기도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멈추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초대하여 그의 인도의 빛으로 우리의 생활 양식을 철저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 부분에 대해 그토록 온전히 집중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생각이 우리의 머리 속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엘사인, 1976년 1월호, 32~33페이지)

일단 자녀들이 기도의 기본적인 요소와 영적인 성장 안에서의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은사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을 온전히 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마태복음 6:10)지기를 기도하게 될 것이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우리의 필요 사항이 다양한 것처럼 기도의 정성도 각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셋세마네 동산에서의 구세주에 대해 말씀했다.



# 할머니의 일대기

더글라스 티 에릭슨

**내가** 학생이었을 때 할머니는 층계에서 넘어져 심하게 다쳐 세 번이나 심장이 멎어 인공호흡을 해야 했다. 또한 늑골이 골절되고, 입술이 터지는가 하면 턱뼈가 부상을 입는 등으로 고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심한 것은 시력을 거의 잃어버린 것이었다.

몇 주 후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사고가 났을 때 죽지 않고 왜 살아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하고 할머니는 궁금하게 여겼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으며 다시 만나기를 고대했다. 다행히도 할머니에게는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가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계단에서 떨어지기도 살아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찾아 내기로 했다. 할머니는 일단 사람이 죽게 되면 지상에는 그를 기억할만한 것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할머니의 손자와 증손자 중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우리가 조상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모두 일지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머니는 결혼생활 50년과 교회에서 할머니가 봉사한 것을 기록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자 할머니는 다시 한 번 삶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되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시력을 거의 잃었으며 타이프 치는 방법도 몰랐다. 할머니는 생각나는 것을 녹음하기 시작했지만 정확하게 기억해내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이때 할머니는 나에게 전화하여 역사를 남기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조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었으며, 그 일을 돕기가 그리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할머니가 사는 곳까지 가서 도울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돕기를 원하고 계셨음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한 나는 할머니께서 사시는 곳 근처에 직장과 아파트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까지도 나는 할머니의 역사 집필을 돕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시간의 일부를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이 가족의 의무라고 느꼈다.

하루는 할머니를 방문하여 필요한 것을 알아 보았다. 할머니에게는 사진, 테이프, 편지, 신문 오린 것 및 증서 등이 한 상자나 있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여러 달, 어쩌면 여러 해가 걸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 새로운 직장에 근무를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나는 등을 다쳐 얼마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상처가 회복되는 동안 할머니의 역사 정리를 돕기로 했다.

나는 곧 자료를 가장 빨리 정리하는 방법은 내가 할머니에게 질문하는 것을 할머니가 대답할 때 그것을 녹음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역사 정리는 착착 진행되었지만 나의 다친 등은 그렇지 못했으며 곧 돈도 다 떨어지게 되었다. 나는 다시 일을 하러 사무실로 나가기로 했으며 역사 일은 잠시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이 무렵 할머니의 가정 복음 교사인 존 마이너는 나에게 어느 날 할머니가 거의 돌아가실 뻔 했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할머니는 몹시 위독하여 가정 복음 교사를 불렀다. 축복을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렇게 했다.

그날 밤 존은 나의 할아버지를 꿈에서 보았는 데 할머니를 데리러 간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존은 애원했다. “아직 안됩니다. 할머니는 아직 역사 책을 다 정리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날 존이 가서 확인해 보니 할머니는 괜찮았다.

존이 꿈 이야기를 내게 해 주었을 때 나는 영이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할머니의 역사를 빨리 마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할머니와 함께 보내고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가능한 한 돕기로 했다.

이제 나의 관심사는 이것을 다른 식구들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내가 글을 쓰는 동안 식량과 집세를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집에도 부탁을 해서 보내온 어떤 옷의 주머니 속에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돈이 들어 있었다. 주님께서는 할머니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도와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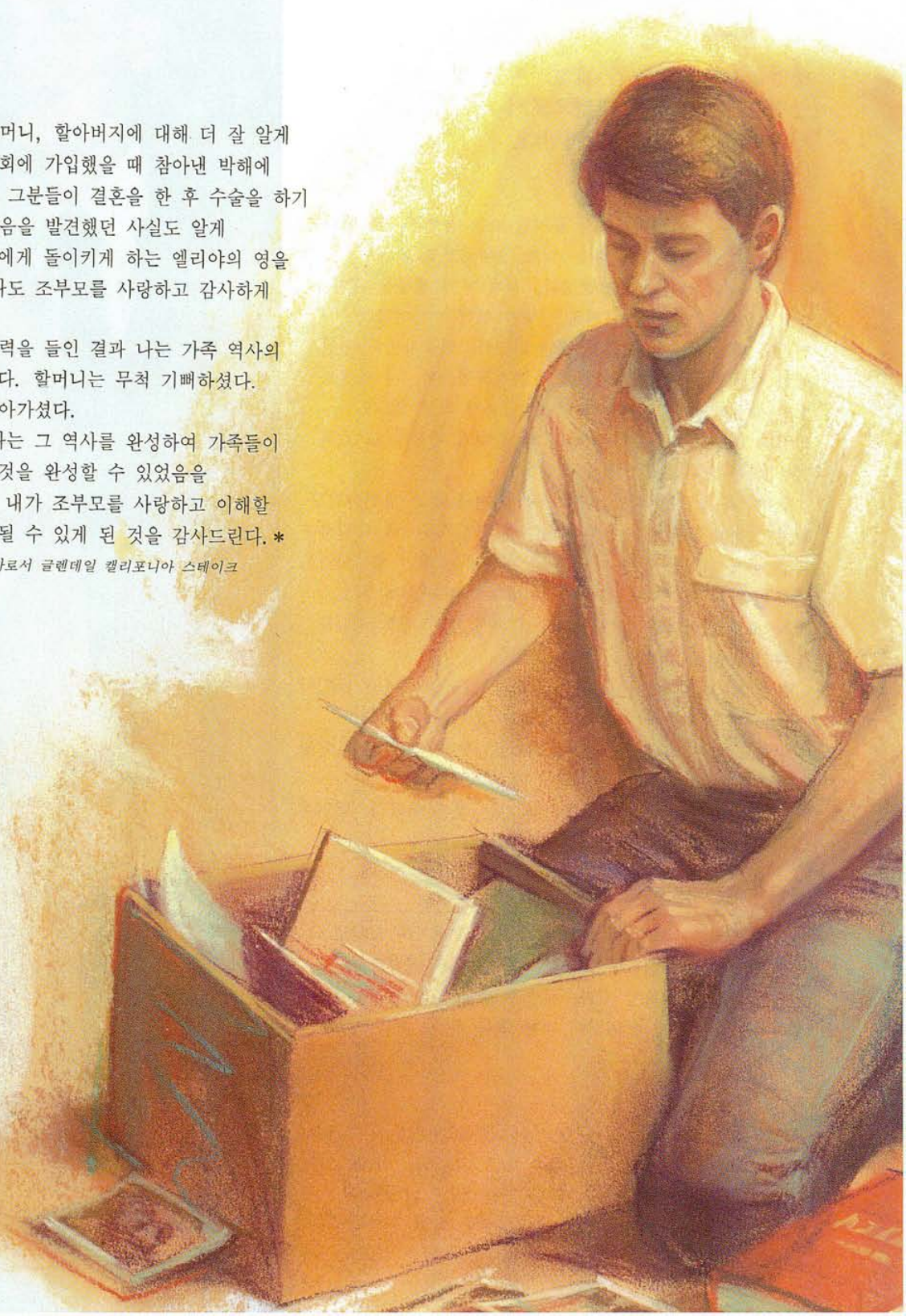
글을 쓰는 동안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나는 그분들이 교회에 가입했을 때 참아낸 박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그분들이 결혼을 한 후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발견했던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의 영을 느꼈으며 이전 어느 때보다도 조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여러 달 동안 꾸준한 노력을 들인 결과 나는 가족 역사의 첫째장을 할머니에게 드렸다.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다.

몇 주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는 그 역사를 완성하여 가족들이 볼 수 있게 했다. 나는 그것을 완성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다른 후손들도 내가 조부모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듯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더글라스 티 에릭슨은 자유 기고가로서 글렌데일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글렌데일 제4ward 회원이다.



# 맹인을 이해함

래리 윌슨 스톤

맹인들 역시 독특한 개성, 재능 및 능력을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한다.

**우리** 스테이크에서 뮤지컬 쇼를 공연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나는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전에 연기 생활을 많이 해보았으나 삼년 전에 완전히 실명한 뒤에는 아마추어 연기에 대한 애착을 소홀히 했던 터였다. 연출자들이 과연 맹인 여배우를 써줄지 하는 것도 걱정되었으며, 나 자신도 또한 복잡한 무대 연기를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보다 의욕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쇼의 역을 위한 오디션을 받았다.

오디션은 잘 되었지만 나를 가장 지지해 주는 남편까지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놀랍게도 나는 내가 원하는 역을 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연출자는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아 차리지도 못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나는 생애에서 가장 멋진 경험 하나를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내가 이야기를 나누어본 사람들 중에는 맹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과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맹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어떤 고통이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맹인이 된다는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맹인은 결국 잘 볼 수 없는 정상적인 사람일 뿐이다.

## 맹인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은 잉태시의 어떤 결함이나 출생시의 사고로 인해 맹인으로 태어나며, 사고나 당뇨병같은 질병으로 시력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 시력을 잃는 일은 갑자기 또는 서서히 올 수 있으며 나이에 관계 없이 올 수 있다. 65세

를 가드너는 워드 청남 회장단 제1보좌이며 또한 교사 정원회 고문 및 스카우트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는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도중 청남들과 함께 그들이 최근에 다녀온 낚시 및 보트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다.





이후가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흔히 시력이 감퇴된다.

맹인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앞을 전혀 못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맹인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제한된 시력을 갖고 있다. 물체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나 자세한 것은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커다란 글씨는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오직 앞 만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측면 만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야맹증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밝은 빛을 받으면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성장한 사람은 맹인이 되는 것에 순응하기가 무척 힘들다. 그러나 다른 변화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은 물론 당사자의 태도가 상황을 훨씬 쉽게 만든다.

맹인이 되었을 당시 나는 내가 과연 남편과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얼마 동안 나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연습하고 일을 해 낼 수 있는 약간의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낸다면 내가 해온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성인이 된 후에 맹인이 된 사람들은 처음에 눈이 먼 상태에 순응하기가 특별히 더 어렵다. 나는 82세 된 맹인 할머니가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며 이전에 즐겼던 독서, 바느질, 또는 기타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슬픔을 느꼈다. 다른 어떤 연로한 자매는 자신이 스스로 성찬을 취할 수 없게 되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그러한 느낌은 눈이 먼 것에 순응하려는 사람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보여지는 일이므로 이들에게는 인생이 아직도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는 상황은 실제적이라기 보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 주는 가족이나 친구의 격려가 필요하다.

맹인이 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는 사람들은 맹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정서적인 힘과 신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러한 도움을 계속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시력이 감퇴된 사람의 필요 사항은 그가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고 독립하게 되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은 맹인의 지속적인 필요 사항을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맹인들 역시 독특한 개성, 재능 및 능력을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

### 사람을 바르게 봄

눈이 먼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상적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이다. 두 가지 가장 해로운

관념은 맹인이 (1)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수퍼맨”이나 “수퍼우먼”이거나 (2) 아주 쉬운 일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맹인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맹인 변호사 브르스 가드너가 이야기한 경험담에는 이러한 생각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브르스가 지금 다니는 와드로 이주해 왔을 때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똑똑하고 친절할 십대의 소년을 만났다. 그러나 와드 회원들은 그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느 곳을 가든 그를 이끌고 다녔다. “와드 회원들은 내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임을 알고 나서는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하고 브르스는 말했다.

“내가 이 소년의 가정 복음 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즉시 그에게 지팡이를 사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우리는 함께 예배당까지의 짧은 거리를 걸었는데 그는 전에는 한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현관 복도와 교실을 알아 두기 위해 건물 전체를 걸어 다녔습니다. 간단히 두번의 연습을 거친 뒤 그는 건물 내의 어느 곳이든 혼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몇몇 사람들의 경우 그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귀환하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을 전혀 못보는 상태에서 또는 제한된 시력을 갖고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 때로는 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시력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장된 칭찬이나 지나친 동정은 필요치 않다.

“맹인에 대한 태도가 늘 문제입니다.”하고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육 심리학 교수인 존 그랜델 박사는 말한다. “내가 구두끈을 맬 수 있다는 것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타주 베니온의 팝 테일러도 동의한다. 그녀와 남편은 모두 시력 장애자로 그들에게는 두 살된 쌍둥이를 포함하여 일곱 명의 자녀가 있다. “아이들 중에서 누구든 잘못을 저질러 질책을 해야할 문제가 생기면 낭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임에도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교회에서의 봉사

시력 장애 회원들은 실제로 교회의 모든 직책에서 봉사하고 있다. 만년에 시력이 약해진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웬디 바이비는 도움을 주는 스카우트 지도자의 권유를 따름으로써 아들 제임스가 스카우트 공로 뱃지를 받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들 모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BOY SCOUTS OF AMERICA

ALL AMERICAN  
JAMBORAL  
UNITED STATES OF AMERICA  
CONSTITUTION  
1787-1987  
GREAT SALT LAKE  
COUNCIL

한 쪽 눈이 완전히 실명된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과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에 이르기까지 시력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와 사도들은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주님을 섬겼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당시 대관장단이었던 세 분 즉, 연로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앤 엘돈 테너 부대관장 그리고 자신의 시력 장애를 농담조로 “눈먼 세 태양쥐”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

존 크렌델 박사는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한 교사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눈이 먼 것이 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고 분명하지만 지나쳐 버리기 쉬운 진리를 지적했다. “맹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은사가 주어졌지만 모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맹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개발하게 하십시오.”

수많은 맹인 회원들은 다른 사람의 태도로 인해 그들이 봉사할 기회가 제한받는 것을 발견한다. 영국 놀위치 출신으로 현재 플로리다주 롬스데드에 살고 있는 클레어 토드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와드에서— 다행히 현재 내가 있는 와드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맹인이라는 이유로 교회 부름의 대상이 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어려움 없이 행할 수 있었던 부름들이었습니다. 한번은 감독이 나를 독신 성인 대표로 부르라는 영감을 받았습시다만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그 속삭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녀는 할 수 없습니다.’ 거듭해서 속삭임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감독은 나에게 부름을 주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 다른 몇 가지 어려움

앞을 못보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잘 적응이 되어 있다 해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독서,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것이 거의 모든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에 속한다. 우편물을 읽거나 공과금을 지불하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수도 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나 경향을 제때에 파악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려 할 때에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

녹음기와 컴퓨터 같은 현대 기술의 진보로 점자만 있을 때 보다는 맹인들이 읽고 쓰기에 훨씬 쉬워졌다. 맹인이 된 후 나는 음성 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것은 내가 눈이 멀기 전에 수년 동안 전문적으로 했던 글을 쓰고 편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녹음기와 컴퓨터는 다만 부분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 기계 설비상 맹인이 읽을 수 있는 속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독서물이 항상 쌓여 있다.

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솔트레이크시티의 다이안 브라운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들

대신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때 그들이 카세트 테이프에 공과를 녹음해 준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공과를 할 때 읽어줄 사람을 찾기가 힘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엔젤레스 메디칼 센터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안과 교수로 있으며 줄스 스티안 안과 협회의 부책임자인 토마스 에이치 페티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감독으로서 나는 자주 봉사 활동으로서 시력 장애자를 위해 자료를 테이프에 녹음하도록 준비하는 팀을 만듭니다.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극에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녹음을 하기 위해 읽는 일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다호주 슈가시티에 사는 토미 미야사키는 독서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교사가 칠판에 글씨를 쓰거나 포스터를 보이면서 쓰여진 말을 읽어주지 않을 때”라고 말한다.

나는 어느 상호부조회 교사가 보여준 관심과 배려를 감사하게 여긴다. 그녀는 다른 자매들을 위해 인쇄한 종이에 담긴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을 담은 카세트 테이프를 나에게 주었다. 그녀는 또한 공과 도중 그녀가 사용한 시각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 교통

교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고 그로 인해 독립성을 잃게 되는 일은 맹인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교회 회원들은 그러한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전에 담당 지역이 넓은 와드에 살고 있었을 때 항상 기꺼이 나를 태워다 주고자 했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가 있었습니다”하고 크렌델 박사는 말한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미망인 매리 맥스필드는 와드 회원들이 그녀를 한달에 한번씩 성전에 데려다 주며 주례로 교회 모임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

나의 경우 와드 회원들은 자주 나에게 전화를 걸어 가서 모임에 차를 타고 가야 할 일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자녀들을 어디론가 데려다 주어야 할 일이 있는가를 물어보곤 한다. 그들은 너무나 자주 그러한 제안을 해오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한 제안을 해오지 않을 때에도 그들에게 전화를 걸기가 쉽다.

### 기타 활동

유타주 웨스트 밸리 시티의 웬디 바이비와 그녀의 아들 제임스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도움을 주는 교회 지도자가 있어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을 알았다. “제임스는 소년단에서 늘 문제가 있었지만 그의 현재 불꽃반 소년단

**린다 브레이스웨이트에게는 맹인이라는 사실이 그녀가 음악적인 재능을 키우고 보여주는 기회를 갖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와드에서 오르간 및 피아노 연주자로 봉사했으며 현재는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에서 노래한다.**





지도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가 매듭을 묶는 법을 배우는 것을 돕는데 추가로 시간을 사용하고 그를 위해 큰 글자로 자료를 인쇄해 주고 항상 내가 읽을 수 있도록 진한 인쇄로 광고 사항을 집에 보내 줍니다. 그녀는 내가 제임스로 하여금 공로 뱃지를 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게 도와 주었으며 그리하여 다른 소년들이 그가 노력도 하지 않고 뱃지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 줍니다.”

#### 사회적인 인정.

사람들이 교회 모임에서는 맹인들에게 친절하지만 그들은 사교적인 면에서는 거의 어떤 곳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것을 느낀다. 내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맹인이 되기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 곁에 가서 앉거나 교회 모임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찾을 수 없다. 나는 또한 와드 내에서 새로운 얼굴이 누구인지 알아 볼 수도 없다. 나는 가끔 그저 자리에 앉아 누군가 자발적으로 내 곁에 다가와 앉기를 바란다.

#### 편안해 짐.

어쩌면 사람들은 맹인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 어떤 일을 하거나 말하거나 않을까 두려워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소경인 것에 대해 농담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결함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그들도 마음 놓고 나의 결함에 대해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여느 친구를 대하듯이 나를 대해 주기 바란다.

한 와드 회원은 나에게 어느 날 그녀 옆으로 내가 탄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내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손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어리석은 짓이야. 로리는 맹인이야. 내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없는걸.” 그녀는 내가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후에 생각이 나자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하고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나는 자매님이 볼 수 없다는 것을 늘 잊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칭찬인지도 모른다. 즉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대해 주는 것이다.” 난 자매님이 맹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다.\*

로리 윌슨 손본은 실명한 지 8년이 되었다. 그녀와 남편 스킵 사이에는 네 명의 자녀가 있다. 그 중 두 명은 그녀가 맹인이 된 뒤에 양자로 데려왔다.

##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맹인이 된 사람과 친하게 되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할 수 없는 일을 마음대로 추정하기 보다는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한다. 그들에게 봉사를 하기 전에 도와줄 것이 있는지 묻는다. 도움이 필요없다고 하면 그들의 말을 믿는다.

2. 그들이 봉사할 기회를 준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을 때는 물어 본다. 그들의 가능한 능력이나 한계성을 추정하지 않도록 한다.

3. 그들과 인사를 할 때 자신을 밝힌다. “누군지 맞춰 보세요.”하는 식의 장난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음성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만 자신을 밝힌다면 고맙게 여긴다.

4.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을 경우 여러분의 팔을 잡고 따라 오게 한다. 그들의 팔을 잡고 이끌지 않도록 한다. 그들이 지팡이로 걷는 경우 여러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하지 말고 “도와 드릴까요?”하고 묻는다. 자리를 찾도록 도와 줄 때는 그들의 손을 의자 등받이에 갖다 대어 주고 그들을 의자에 밀어 앉히지 않도록 한다. 그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도움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한다.

5. 그들을 위해 읽어 주거나 아직 녹음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녹음해 준다. 인용할 때는 “인용” 및 “인용 끝”이라고 말해 준다.

6. 공과를 할 때는 시각 자료나 칠판에 쓰는 내용을 읽어 준다.

7.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질문하지 않도록 한다. 눈이 안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지능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소리치기 말고 평소의 음성으로 말한다. 대부분의 맹인은 농아가 아니다.

8. 청각과 같은 다른 감각 기관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자동적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가정하지 않도록 한다. 그들이 다른 감각 기관을 더욱 온전히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읽어버린 시력대신 그러한 것들이 자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9. 그들을 알고 친구가 되도록 한다. 그것은 그들 못지 않게 여러분에게도 풍요로운 것이 될 것이다.\*

# 나도 모르게 부른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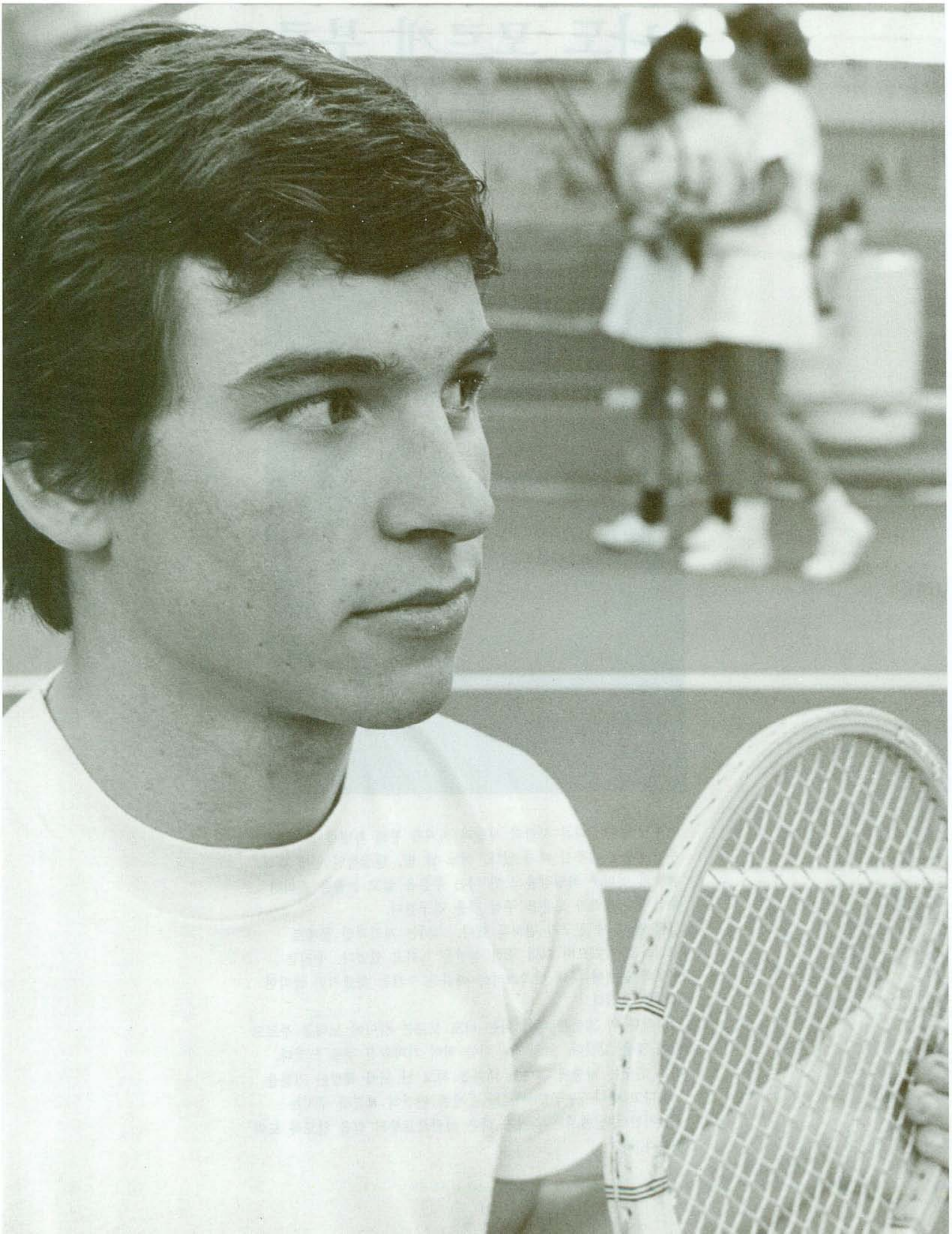
베티 잔 머피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다. 어느 날 밤, 일상적인 일에 대해 감당키 어려운 책임감을 느낀 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이해력과 도움을 주실 것을 간구했다.

몇 분 후에 친구가 전화를 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으며 그녀 또한 실망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을 주지는 못했지만 짧막한 대화를 즐겼다.

그러나 약 30분쯤 후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알았다. 놀랍게도 나는 짐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나의 친구는 나중에 그녀도 대화를 하고 난 뒤에 해방된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누구도 서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각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도와 주셨다.\*



## 나쁜 생각을 깨끗하게 함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쁜 소녀를 보면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병들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나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병든 것은 아닙니다. 생각에는 강한 힘이 있어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전혀 원하지도 않을 때에 뜻밖의 생각이 마음속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매력을 감지하는 것과 같은 순수성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경우 쉽게 건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해결책은 나쁜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며들 때 막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극장에, 그리고 생각을 연극 배우에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치 않는 사소한 나쁜 생각이 살며시 스며들어 주의를 끄는 것을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나쁜 생각은 모든 사람을 해치려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계속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이 허락한 것이 되므로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한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위해 공연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흥미있기도 하려니와 결백한 것이라는 확신까지 들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가 나쁜 생각이라는 요정에 점령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아하는 찬송가를 택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것도 좋겠지요.

“이제 이 찬송가를 여러분의 생각이 거할 곳으로 활용하십시오... 이러한 웅크린 배우가 여러분의 생각의 한쪽 구석으로부터 슬그머니 나와 여러분 마음의 무대로 올라가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이 레코드를 트십시오.

“음악이 시작되고 그 가사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리잡게 되면, 합당치 못한 생각들은 부끄러워서 슬며시 도망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무대 위에 있는 분위기 전체를 바꾸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고상하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저속한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앤사인, 1974년 1월호, 28페이지)

패커 장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서기에 합당한 곳이 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생각에 대해 염려가 된다면 생각을 방황하게

유도할 수 있는 텔레비전 쇼, 영화, 비디오 테이프, 책, 잡지 및 건전하지 못한 음악을 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좀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들을 찾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데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상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8)

왜 그런 엄중한 경고를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행위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떤 선교부장은 그의 선교사에게 “정말 예쁜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조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거기에 그쳐야 합니다.

왜 육체적인 매력을

## 교회 청소년들의 응답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단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대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 위에서 맺어진 관계는 미친한 것이며 다만 한 가지 욕구만을 충족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일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뜻이 보살피며 완전한 관계를 갖는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남편과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합된 영원한 가족의 중심으로써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강한 유대를 맺는 사랑과 애정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성장하고 배우며, 장차 해의 왕국에서의 가족 생활로 인도하는 성전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곧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가 됨을 이해하게 되면, 주님께서 왜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교성 121 : 45)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을 다스리기란 힘든 일입니다. 찬송가를 부르거나, 경전을 읽거나 또는 그 생각을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간혹 그러하듯) 계속된다면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건전지 못한 음악, 책, 포스터, 옷 또는 활동과 같은 것을 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마음 속에는 쓸데없는 것들을 담아 두기에 좋은 곳입니다만 깨끗이 치우기도 힘든 곳입니다.



래니 록, 16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예쁜 소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며시 나쁜 생각을 밀어 넣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생각에 주의해야 하며, 여러분이 그릇된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쫓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지키도록 기도하고 매일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나는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이리드 패리쉬, 17세  
유타주 시더 시티

나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병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너저분하고 게으르며 혹은 말다툼하는 것 등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생각되는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지상에 왔다면 우리 생의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게 될 때마다 그러한 것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어 놓으십시오. 훌륭한 인용문이나 음악을 마음에 떠올리거나 좋아하는 성구를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 레드, 17세  
아리조나 피닉스

젊은 청년이 이성의 회원과 그녀의 육체적인 매력에 끌리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소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눈을 돌리지 않기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한 생각에 빠져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언동을 [지키지]...아니할진대 기필코 너희가 멸망하리라.”(모사이야서 4 : 30) 엘마는 우리에게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엘마서 12 : 14)라고 했습니다.

깨끗치 못한 생각에 빠져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어떤 청년이 미래에 내 아내가 될 청년에 관해 그런 생각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여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데려왔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은 그것을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매튜 디 칼링, 18세  
캘리포니아 비스타

불행하게도 그러한 감정 또는 느낌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십대에 때때로 이성에 대해 부도덕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의 생애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도덕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떠오를 때 마음을 채울 다른 어떤 것을 찾아 낼지 못한 생각을 몰아내고 그 대신에 사랑스런 꽃들로 가득찬 아름다운 초원을 생각하다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면

감독님을 찾아가 말씀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텔린다리 앤 베크, 15세  
와싱턴 타코머

아닙니다, 형제님은 도덕적으로 병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생각과 행동과 육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실제로 행하기 보다는 말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나쁜 점을 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이나 교회 또는 성전이나 어떤 좋은 장소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 존스, 15세  
아이다호 리그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병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과 느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러한 부도덕한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다스리기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여름철 사람들이 반쯤은 벗고 지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부장님은 우리에게 이런 "나쁜 생각"을 가능한 빨리 "좋은 생각"으로 바꾸어 놓으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찬송가, 경전 등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은 더 좋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도움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흐르고 계속 실행하면 더욱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예쁜" 소녀를 보게되면 선하고 깨끗한 생각으로 그녀를 지켜 주십시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글렌 더블류 버어, 20세  
인디애나 인디애나폴리스  
선교부

나는 형제님의 질문에 대해 좀 다른 견해를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나는 형제님이 말한 것과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게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 또한 내가 도덕적으로 병들지나 않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선한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에 서로 다른 강도로 나타나며 도덕적인 건강과 병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다루는 방법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마크 라센, 21세  
유타 드래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표지를 보고 책을 판단할 수는 없다." 흔히 우리는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을 미남이니 미녀니 하고 판단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내적 특성은 물론 외모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이크 샬러 장로, 23세  
캐나다 위니 펙 선교부



MAZARIN  
LA MARE  
FLUR

MAZARIN  
LA MARE  
MAZARIN  
LA MARE  
MAZARIN  
LA MARE

RECORDU

STRANGE TALES  
DOCTOR STRANGE  
IN THE MANDALAY PALACE

10  
CAT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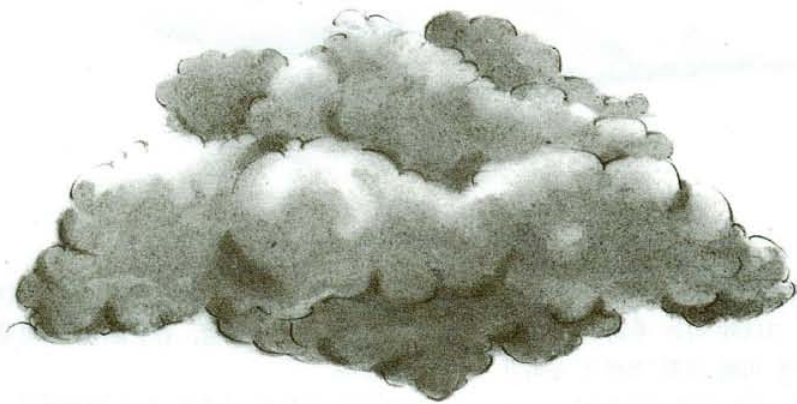
11  
CAT MAN

12  
CAT MAN



# 슬픔의 어두운 구름을 헤치고

존 비 피시



나는 아홉 살 때 죄를 범했다. 나는 상점에서 만화책을 훔쳤다. 책 주인은 내가 훔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내가 만화책을 살만한 돈이 없음을 알고는 의심을 했다. 어머니는 일단 나에게서 진실을 알아내자 나를 그 상점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죄를 고백하게 했다. 그는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다시는 훔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게 했다.

그 상점의 바닥은 나무로 된 것이었는데 매일 저녁 주인은 하루 동안 쌓인 먼지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톱밥을 그 위에 뿌리고 그것을 쓸었다. 내게 그 일이 지명된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그 일을 하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매일 오후 내가 수업을 마치고 마루를 쓸기 위해 상점에 들어가면 그 주인은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고는 뒷쪽에 있는 빗자루와 톱밥이 담긴 종이 박스쪽을 가리켰다. 몇 주일 지나자 그는 어느 날 밤 나에게 충분히 쓸었다고 말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청소와 내가 치루어야 했던 대가를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아직도 그 만화책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죄의식과 가슴 아픔과 비통함 그리고 깊은 슬픔은 내가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오래 전에 사라졌다.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청소를 한 것을 기억하면 지금도 훔친데 대한 대가를 상기하게 된다. 그것은 내가 다시는 부정적하지 않도록 고무시켜 준다.

결혼하고 몇년 후에 나는 주일학교 15반을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 반은 학생들이 열성적이고 활동적인 큰 학급이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서기 위해 매주 잘 준비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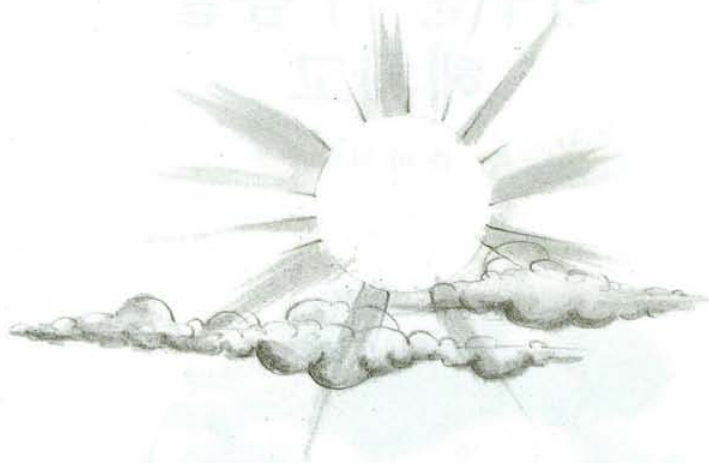
어느 일요일 공과가 끝난 후 한 청남이 우리가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가 관여했던 도덕적인 범죄에 관해 나에게 모두 털어 놓았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으며 나는 그의 마음이 커다란 뉘우침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인 감독님을 만나보라고 했으며, 결국 약속된 시간에 그와 함께 가서 밖에서 기다렸다. 물론 그 청남이 행한 잘못을 함께 할 필요는 없었으나 나는 이내 이 청남의 얼굴에서 슬픔과 비애의 검은 구름이 걷히는 것을 보았다. 얼마 안되어 그는 내가 몇년 전에 보아왔던 평범하고 멋진 청남으로 돌아왔다. 회개는 그의 영혼을 씻고 그의 가슴과 마음과 얼굴까지 깨끗하게 해 주었다. 그의 눈은 더 밝아지고 그의 웃음은 더 커졌으며 그의 걸음걸이와 그가 스스로 나아가는 길은 행복을 암시했다.

그후 감독으로서 나는 누구나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 단계를 따라야 함을 배웠다.

1. 잘못을 범했음을 인식한다.
2. 죄를 범하는 행위를 버린다.
3. 죄를 고백한다.
4. 보상한다.
5. 스스로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내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워드의 한 장미반원이



연례 접견을 받으러 왔다. 화창한 여름 날, 오후의 햇살에 공기 중의 먼지가 반짝였다. 그녀와 나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크게 눈에 띄는 부분들에 비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전혀 눈치차릴 겨를도 없이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계속 흐느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그 옆에 앉았다. 나는 위로해 주려 했다.

“무슨 일이지요?” 내가 물었다.

“너무 두려워요!” 그녀가 소리쳤다.

“자매님이 것처럼 두려워 할 어떤 일을 했나요?” 내가 질문했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너무 잔인하게 굴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당황하게 하려고 고의로 놀렸어요. 나는 두려워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더 울었다.

“자매님이 그 친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예를 하나 들어 주겠어요?” 내가 신중하게 물었다.

그녀는 그녀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한 이 청년에게 악의적이며 계획적으로 공격한 몇 가지 상황을 이야기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감독님?” 나는 그녀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기억한다.

가능한 친절하고 부드럽게 나는 그녀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요?” 그녀가 질문했다.

“글쎄요,” 내가 말했다. “자매님은 자매님이 친구에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자매님은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매님은 진실로 이 결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몇날 몇주 동안 이 상냥한 청년은 심술을 부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녀는 남을 해롭게 하려는 계획을, 친구를 돕고 향상시켜 주는 계획으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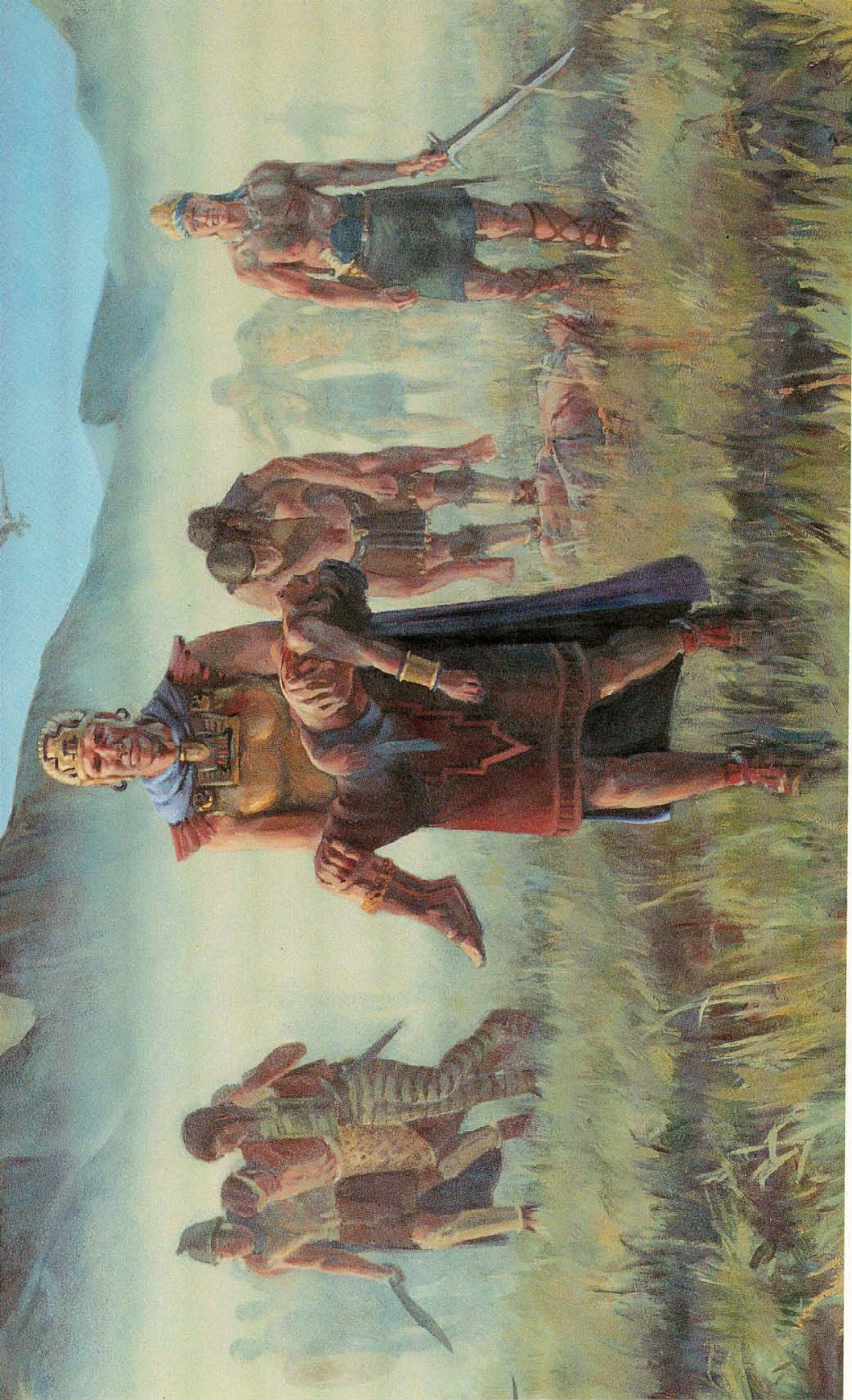
그녀는 감독인 나에게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는 그녀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친구에게로 가서 화해를 했다. 보상을 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의 어린 친구는 진실하고 이해심있는 친구를 위해 더 수월하고 복잡하지 않게 생활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나는 곧 용서를 구하는 것 만큼이나 용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훌륭한 청년였다.

몇 개월 안되어 나의 어린 장미반 친구는 자신을 용서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친구는 몇 주 전에 그녀를 용서했다.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제 그녀의 가슴과 마음은 평온하다. 나는 그녀가 전에는 친구를 어떻게 대했었는지 지금도 기억하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나 고통스러움은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

엠울레크는 엘마와 함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 보라 우리가 생을 누릴 동안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다가오느니라.”(엘마서 34 : 33)

우리에게는 만일 우리가 회개하면 죄의 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실 사랑이 충만하시며 친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주님께서 “슬픔의 어두운 구름”을 거두어 주시어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인해 오는 화평과 행복을 맛보기를 택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귀함” 데이비드 호르트 그림

“(니파이인들이) 함께 모여 나아가 레이맨인들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려 했으나, 레이맨인들에게 패하여 뒤로 쫓겨났고 살륙당한 자가 많은지라. 리하이 백성들이 크게 애통하고 슬퍼하였으나, ... 또다시 싸움을 일으켜 나아가었으나 큰 손실을 입고 쫓겨 왔으며, 세번째로 나아가 공략을 시도했으나 만질번처럼 패하여 생존자들이 니파이성으로 와, 스스로 티끌처럼 낮아져서...

(모사이사서 21 : 7~13 참조)



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가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관해  
좀더 배우고 그분께 돌아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친구들도 진리를 알고 나와 같  
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